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현황과
클래식 음악 전공생의 관심도 조사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황 효 진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현황과
클래식 음악 전공생의 관심도 조사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황 효 진

인 준 서

황효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 7종을 대상으로 하여 클래식 음악 전공생들에게 필요하며 적합한 내용을 반영하여 발행하고 있는지,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클래식 음악 전공생의 관심도는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의 4개 대형서점 18개 지점을 방문조사 하여 실제 판매되고 있는 음악 전문지를 조사한 후 그 중 클래식 음악 전문지 7종을 선정하였고, 클래식 음악 전문지 2012년 3월호를 기준으로 하여 기사를 내용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클래식 음악 전공생의 관심도를 서울시 소재의 음악대학 재학생 관악, 성악, 작곡, 피아노, 현악 5개 전공으로 나누어 무작위 선정하여 325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관심도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문화관광부 정기 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음악 전문지는 총 76종으로 이중 매월 발행되는 음악 전문지는 총 32종이며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총 8종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악 전문지는 18종,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8종이다.

둘째,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페이지는 <The Piano> 182페이지, <객석> 166페이지, <음악저널> 164페이지, <The Strad> 164페이지, <음악춘추> 156페이지, <String&Bow> 142페이지, <Flute&> 124페이지 순으로 나타났다며 최대 60페이지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기사를 내용별로 분석해 본 결과 공연소식 > 인터뷰 > 광고 > 기획 기사 > 기타 > 공연 평 > 지상레슨 > 동향 > 지식습득 > 칼럼 > 콩쿠르 > 음반 > 음악축제 > 입학정보 > 도서 > 독자참여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소식은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도서와 독자참여는 각 0.2%의 가장 낮은 비율로 기사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클래식 음악 전공생 151명 46.3%가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8.9%의 높은 비율로 전공생 스스로의 교육 효과 및 음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다섯째, 7종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모르는 전공생은 11명이 있었으며, <음악저널>, <음악춘추>, <The Piano>, <String&Bow>, <객석>, <The Strad>, <Flute&>의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여섯째, 클래식 음악 전공생 266명 81.8%가 정기구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기구독을 하는 59명 중 21명이 <음악저널>을 정기구독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정기구독률을 보이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였다. 1종의 정기구독은 16명, 2종의 정기구독은 34명, 3종의 정기구독은 7명이며 4종 이상의 정기구독을 하는 전공생은 없었다.

따라서 보다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필요하며 효과적이고 적합한 클래식 음악 전문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더욱 전문화가 요구되며 다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정기구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대중성을 가지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발간하는 출판사는 전문적이며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기사를 다루어야 하며, 클래식 음악 전공생과 소통해야 한다.

클래식 음악 전공생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여 음악계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제한점	4
4. 선행연구	5
II. 클래식 음악 전문지	7
1. 잡지	7
2.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개념	14
3.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역사	17
4.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특성	21
III. 클래식 음악 전문지 현황 및 내용 분석	24
1. 클래식 음악 전문지 선정 과정	24
2. 클래식 음악 전문지 현황	27
3. 클래식 음악 전문지 내용 분석	36
4. 종합 토론	51
IV. 조사 연구	57
1. 설문 응답에 대한 분석	57
2. 설문 조사 결과	79
V. 결론 및 제언	82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부 록

- 표 목 차 -

[표 1] 우리나라 잡지의 시대별 발전과정	09
[표 2] 이념 ·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잡지 분류	10
[표 3] 발행 기간에 의한 분류	10
[표 4] 내용 · 성격에 의한 분류	11
[표 5] 관형에 의한 분류	12
[표 6] 국내 음악 전문지의 역사	20
[표 7] 대형 서점 중 조사한 지점	24
[표 8] 지점 별 음악 전문지의 분포 표	25
[표 9] <객석> 현황	27
[표 10] <음악저널> 현황	28
[표 11] <음악춘추> 현황	30
[표 12] <Flute&> 현황	31
[표 13] <String&Bow> 현황	32
[표 14] <The Piano> 현황	33
[표 15] <The Strad> 현황	34
[표 16] <객석> 분석 표	36
[표 17] <음악저널> 분석 표	38
[표 18] <음악춘추> 분석 표	40
[표 19] <Flute&> 분석 표	42
[표 20] <String&Bow> 분석 표	44
[표 21] <The Piano> 분석 표	46
[표 22] <The Strad> 분석 표	49
[표 23] 클래식 음악 전문지 분석 표	51
[표 24]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58
[표 25] 설문지 구성 문항	58

[표 26] 전공 별 분석 대상 비율	59
[표 27] 전체 남·여 비율	60
[표 28] 전공 별 남·여 비율	61
[표 29]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흥미	61
[표 30] 이용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 종류	62
[표 31] 클래식 음악 전문지 구입 방법	64
[표 32]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한 시기	65
[표 33]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하게 된 동기	66
[표 34]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보는 이유	67
[표 35]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필요도	68
[표 36]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주는 이점	68
[표 37] 설문지 9~11문항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 종류 보기	69
[표 38]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인지도	70
[표 39] 클래식 음악 전문지 정기구독	71
[표 40] 그 밖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정기구독 현황	72
[표 41] 정기구독을 하지 않는 이유	73
[표 42] 설문지 13~15문항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 기사 분류 보기	74
[표 43]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볼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사	74
[표 44]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 하는 기사	76

- 그림 목 차 -

[그림 1] <객석> 표지	27
[그림 2] <음악저널> 표지	29
[그림 3] <음악춘추> 표지	30
[그림 4] <Flute&> 표지	31
[그림 5] <String&Bow> 표지	32
[그림 6] <The Piano> 표지	33
[그림 7] <The Strad> 표지	35
[그림 8] <객석> 해외 공연에 대한 상세한 기사	37
[그림 9] <객석> 음악 관련 외의 상품 광고	37
[그림 10] <음악저널> 오페라 무대 의상 디자이너 인터뷰	39
[그림 11] <음악저널> 음악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 사고 기사	39
[그림 12] <음악춘추> 인터뷰의 내용과 사진	41
[그림 13] <음악춘추> 공연 소식을 소개하는 기사	41
[그림 14] <Flute&> 재즈연주 마스터 클래스	43
[그림 15] <Flute&> 국내 · 국외 음반발매 안내	43
[그림 16] <String&Bow> 창간10주년 기획기사	45
[그림 17] <String&Bow> 공연 소식	45
[그림 18] <The Piano> 공연 소식	47
[그림 19] <The Piano> 공연 소식과 같은 사진과 인터뷰 기사	47
[그림 20] <The Strad> 파가니니의 생활에 대한 기사	49
[그림 21] <The Strad> 즉흥연주에 관한 마스터클래스	5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사회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부분과 영역에 걸쳐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고 핵심 요소가 되는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 그에 따라 현대 사회는 첨단 과학과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전이 기반이 되어 문화 산업과 지식정보가 사회 전반에 걸쳐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정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고 여가생활과 즐거움을 만족시키고 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의 시대로 변화였다.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사회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저녁이 되어 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대중매체와 함께 공존하고 대중매체의 정보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잡지는 신문과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중 전달매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잡지를 '제3의 언론'이라 하는데 인쇄물의 발명 이래 출판과 잡지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언론매체인데도 속보성과 영향력 면에서 신문이나 라디오, TV 등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속도가 느린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문이 제1의 언론이라면 방송은 제2의 언론이고 잡지는 제3의 언론이라는 이야기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잡지가 일반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비해 뒤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신문과 방송은 시사적인 뉴스 전달의 보도, 논평에 앞서지만 고도의 지적 정보 전달 등의 전문성 및 지도성에 있어서는 잡지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잡지는 신문과 방송에 비해 고도의 전문분야를 다루는 특성이 있으며 내용이 언론적이라기보다 오히려 학문적이

고 전문적이다. 따라서 잡지의 내용은 교육적이고 문학적이며 예술과 학술성을 띠고 있어 인간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며 그 강도와 심도가 신문이나 방송보다 훨씬 깊고 높다는 것이다.¹⁾

일반적으로 책이나 잡지와 같은 출판 언론매체는 신문과 방송처럼 습관적이기 보다는 독자 스스로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목적 지향적이며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다른 대중매체에 비해 머릿속에 선명히 각인되어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

잡지는 특히 사건과 경향 등을 깊이 있게 해설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신문·방송 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논평을 통한 지도적 기능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신문·방송 매체와 비교한 잡지 언론의 우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따라서 일반 대중매체처럼 오락매체로 간주되기 보다는 오히려 사색을 통한 지식과 의견, 사상이 전달되는 정보매체로 인식된다. 더구나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편집디자인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내용과 화려한 편집을 가능하게 하며 잡지를 대중과 밀착시키고 있다.

잡지의 장점을 음악 전문지에 대입해서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면 음악 전문지는 음악을 전공하는 특정 목적을 가진 독자가 구독하게 되므로 더욱 확실한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음악 전문지의 편집자들은 연주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교육용 기사를 매달 할애함으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일부의 학생들은 교재로서 오랜 기간 보관하고 때로는 보존 판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선임자들인 연주자의 연습방법이나 다양한 경험담은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음악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많은 연주 소식은 교육 현장을 직접 제시함으로서 교육적인 기능과 연결된다.

그러나 잡지의 교육적 효과는 잡지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³⁾가 잡

1) 오진환 외, <한국 언론과 사회교육 - 사회교육 모체로서의 언론에 관한 연구>,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1985, p.13

2) 전영표, <출판문화와 잡지 저널리즘>, 대광문화사, 1997, p.91

3)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 혹은 전달자

지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이행할 때만 가능하다. 잡지 커뮤니케이터는 소유주, 광고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할 수 있는가가 가장 관건이다. 잡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잡지 커뮤니케이터는 전체의 사회적 복지를 위해 공정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해로운 상품광고의 게재를 거부해야하고 독자의 필요에 응할 수 있는 주제나 기사를 쓰도록 방침을 확립해야 한다.⁴⁾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홍난파가 일본에서 유학시절 유학생들과 함께 <삼광(三光)>이라는 음악 전문지를 발간한 이후 수많은 음악 전문지들이 발행되어지고 사라졌지만 2012년 현재까지 음악 전문지는 계속해서 음악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음악인들 역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에 서점과 도서관에서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직접 만나기보다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클래식 음악 전공생들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내용을 반영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클래식 음악 전공생의 관심도는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클래식 음악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만족도와 관심도를 조사한다. 설문을 바탕으로 클래식 음악 전공생들이 인식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4개 대형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

4)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세영사, 1987, p.112

스(BANDI&LUNI'S), 북스리브로(BOOKS LiBRO)를 대상으로 서점의 규모와 인구 유동성을 고려하여 18개 지점을 선정 후 배포되고 있는 모든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조사하고, 4개의 대형서점 중 3곳 이상에 배포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 <객석>, <음악저널>, <음악춘추>, <Flute&>, <String&Bow>, <The Piano>, <The Strad> 총 7종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시 소재의 클래식 음악 전공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관심도와 만족도를 조사 하였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분석은 2012년 3월호를 기준으로 하였고,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회수한 325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소재 대형서점 4곳의 18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지점 중 대학 내에 소재하는 서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대형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북스리브로의 18개 지점 중 한 지점 이상에 배포되면 해당 서점에 배포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형서점 4곳 중 3곳 이상으로 배포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클래식 음악 전문지 중 월간지를 기준으로 하며, <International Piano>는 월간 클래식 음악 전문지이지만 서점의 2곳에만 배포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Flute&>은 격월간으로 발행되지만 서점의 3곳 이상에 배포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넷째, 설문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음악대학 클래식 음악 전공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다.

4. 선행연구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홍혜정(1981)의 “한국 음악 잡지의 발달과 그 성격에 대한 소견 : 월간 음악의 경우”에서 현재 폐간된 <월간음악>을 창간된 1970년 7월부터 1980년 7월까지 10년간에 걸쳐 발행된 113호까지를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비전문적 기사가 전문적 기사보다 지면을 많이 차지했으며, 표지나 기사에 있어 한국 음악인에 비해 외국 음악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두드러졌고, 음악평이 부분별로 정리가 안됐으며 한 사람의 평론인이 특정 분야 없이 음악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하였다.

이영수(1990)의 “국내 월간 음악지의 내용 분석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 당시 발간되던 <월간음악>, <피아노음악>, <객석>, <음악동아>, <음악교육> 5종의 음악 전문지를 창간 년도 순으로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지로 보기에 그 내용이 빈약하고, 교양지로 보기에 전문적인 성격을 띤 내용이 삽입되어 특성을 규정짓기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국악은 평균 5.4%로 적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연주소개 및 연주 평의 내용은 평균 13.6%로 많은 내용의 소개였다. 또 외국에는 다양한 음악 전문지의 발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극소수의 전문잡지 밖에는 접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음악문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성은(2006)의 “국내 클래식 음악 잡지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지의 한 종류인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 잡지 중 발행 부수가 많고 독자들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진 7종의 클래식 음악 잡지를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 잡지의 구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각적 디자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이상적인 클래식 음악 잡지의 편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7종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표지, 목차, 판권, 판형 및 제본, 레이아웃, 그리드 시스템, 여백, 단,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색, 광고를 분석하고

클래식 음악 잡지의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클래식 음악 잡지의 시각적 구성요소와 사례를 들어 분석함으로써, 국내 클래식 음악 잡지 디자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최반야(2006)의 “국내 음악 전문 월간지에 대한 독자들의 만족도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음악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에서 매월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7종의 전문지를 선정하여 편집을 분석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음악 전문지의 현황 분석과 그에 따른 교육적 역할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영향력은 어떠한지 설문하였다. 그 결과, 음악 전문지는 많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음악 전공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정보와 진로의 정보는 부족하고 실질적 교육적 효과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내용 분석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클래식 음악 전공생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기존의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한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폐간되기도 하였고, 선정방법은 그 당시에 발간되고 있던 클래식 음악 전문지 중 인지도가 있는 전문지 혹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월간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인지도는 그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며, 클래식 음악 전문지 중 문화관광부에는 등록이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발행되고 있지 않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도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의 대형서점 4곳의 18개 지점을 방문 조사하여 실제 판매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조사하여 선정한 것이 기존의 논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클래식 음악 전공생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클래식 음악 전문지

1. 잡지

(1) 잡지의 개념

잡지란 일정한 편집방침 아래 편집자가 여러 가지 원고를 수집·작성·편집하여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서 주 이상의 간격으로 발행되는 종이 책·음성 책·화면 책 형태 등의 연속 간행물 중의 하나인 정기적인 출판물이다.⁵⁾ 또한 잡지(Medium/정보 전달 등의 매개 또는 수단의 의미)란 전하고자 하는 내용(Message)을 잡지 언론(Sender)이 독자(Receiver)에게 전달하는 다리이다.⁶⁾

잡지라는 말의 원어인 ‘매거진(Magazine)’이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영국의 인쇄업자인 케이브(Cave. E.)가 1731년에 <젠틀맨스 매거진(Gentleman's Magazine)>이라는 월간 종합지를 창간한 후 부터 비롯되었다. 이 잡지에는 당시 법으로 금지되어 신문에서 쓰지 못했던 국회관계의 뉴스와 평론을 대담하게 다루어 잡지 사상 잊혀 질 수 없는 공헌을 남기면서 이때부터 정기간행물인 잡지에 대해서 창고, 또는 저장소라는 뜻을 가진 ‘매거진’이란 말이 ‘지식의 창고’로 전환되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⁷⁾

매체로서 잡지는 첫째, 타 매체에 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기획, 취재, 보도, 논평, 지도, 오락, 광고 등의 다 기능적 역할을 하며 보다 심층적이고 분석적이며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인간의 정신세계에 깊이 적용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주어 인간형성의 근간을 이루는 매체이다. 셋째, 많은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능

5) 고정기, <잡지편집의 이론과 실제>, 보성사, 1991, p.57

6) 오진환, <잡지의 편집, 광고 및 판매전략, 잡지발전 세미나 자료집>, 한국잡지협회, 1981-1990, p.35

7) 고정기, 전계서, pp.14-15

력을 갖추으로써 정보의 정수만을 추출, 독자에게 제공하는 아카데미즘 저널리즘이 융화된 교육계몽의 역할을 수행한다.⁸⁾

(2) 잡지의 역사

1665년 프랑스의 <르 주르날 드 사방 (Le Journal des Savants)>이 세계 최초로 간행된 잡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로서 서적상들이 책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든 것으로 오늘날의 도서목록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 뒤 17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시사적인 수필이나 그 밖의 내용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1704년 데포(Defore. D.)는 런던에서 <더 리뷰(The Review)>라는 잡지와 신문의 중간형태의 것을 발간하였다. 처음에는 국내외 정치사건에 대한 논평만을 싣다가 뒤에는 문예 · 도덕 · 예절란을 두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 이와 비슷한 간행물의 발간을 촉진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스틸(Steele. R.)의 <태틀러(Tatler)>, 애디슨(Addison. J.)의 <스펙테이터(Spectator)>를 들 수 있다.⁹⁾

그러나 매거진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1731년 케이브가 영국에서 발간한 <젠틀맨스 매거진> 잡지는 시사 · 시 · 전기 · 음악 및 여러 가지 삽화 등을 게재함으로써 신문과 구별되는 잡지의 성격을 정립하였다. 그 뒤 유럽 및 미국에서 많은 잡지가 발행되어 오늘날과 같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⁰⁾

우리나라에서 잡지의 등장은 개화기 서구문물과의 접촉과 함께 비롯되어 그 뒤 정치사적 기복에 따라 그 형태 및 추세가 변모하고 발전해왔다. 그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이 크게 개화기(1892~1910) · 일제강점기 · 광복 이후로 나눌 수 있으며¹¹⁾ 일제강점기는 다시 무단정치시대(1910~1919) · 문화 통치기(1919~1937) · 암흑기(1937~1945)로 광

8)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 1992, p.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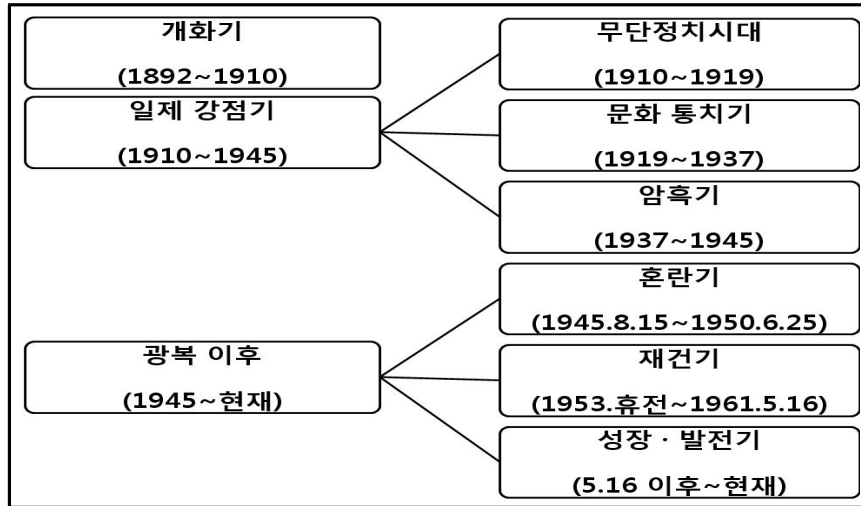
9) 이광재 · 이정자 · 한균태 외, <현대사회와 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p.10-11 요약

10) A. Swingewood, <대중문화의 원점(The Myth of Mass Culture)>, 전예원, 1984, p.162

11) 김근수, <한국 잡지사>, 한국학연구소, 2004, p.111

복 이후는 혼란기(8.15 광복~6.25 동란) · 재건기(1953. 휴전~1961.5.16) 및 성장 · 발전기(5.16 이후~현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¹²⁾

[표 1] 우리나라 잡지의 시대별 발전과정



(3) 잡지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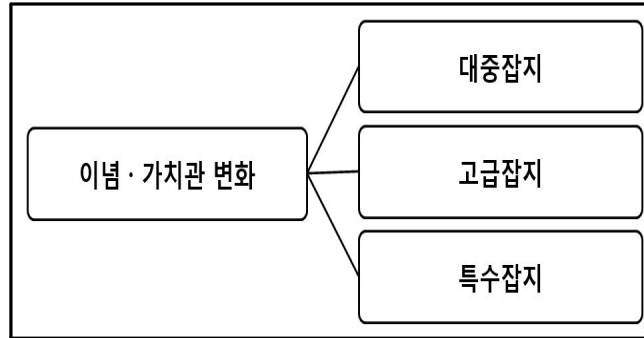
잡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생 초기의 이념이나 가치관이 변하여 보다 많은 독자를 얻기 위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중잡지, 고급잡지, 특수잡지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표 2).

잡지의 종류를 나누는데 있어서는 분류 기관과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수많은 잡지를 내용이나 체제에 따라 일반화시켜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위험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 간행물은 각자 독특한 내용, 독특한 체제에 의해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종류를 가릴 경우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¹³⁾

12) 이중한 · 이두영 · 양문길 · 양평,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2002, pp.228-290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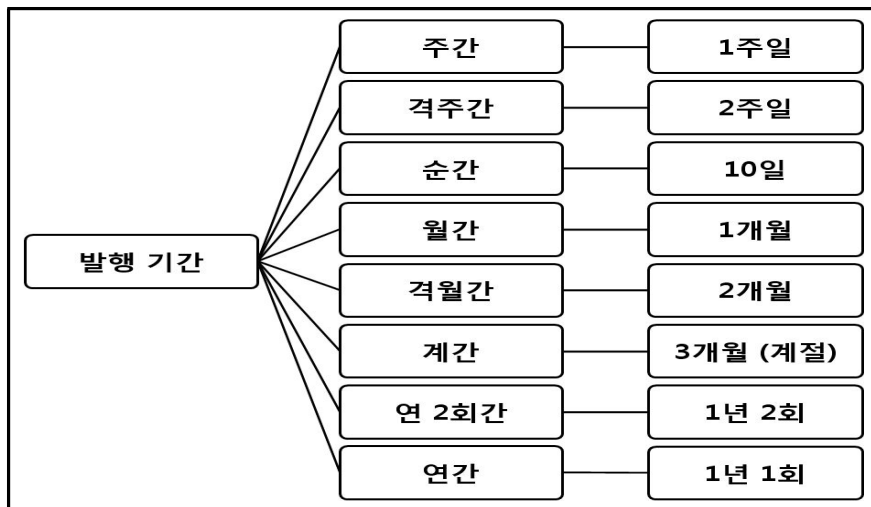
13) 박기현, <한국의 잡지 출판>, 늘푸른소나무, 2003, p.68

[표 2] 이념·가치관 변화에 따른 잡지 분류



발행기간에 의한 분류는 [표 3]과 같다. 1주일 단위로 발행하는 주간지, 2주일 단위로 발행하는 격주간지, 10일 단위로 발행하는 순간지, 1개월 단위로 발행하는 월간지, 2개월 단위로 발행하는 격월간지, 3개월 즉 계절별 단위로 발행하는 계간지, 1년에 2회 발행하는 연2회간지, 1년에 1회 발행하는 연간지가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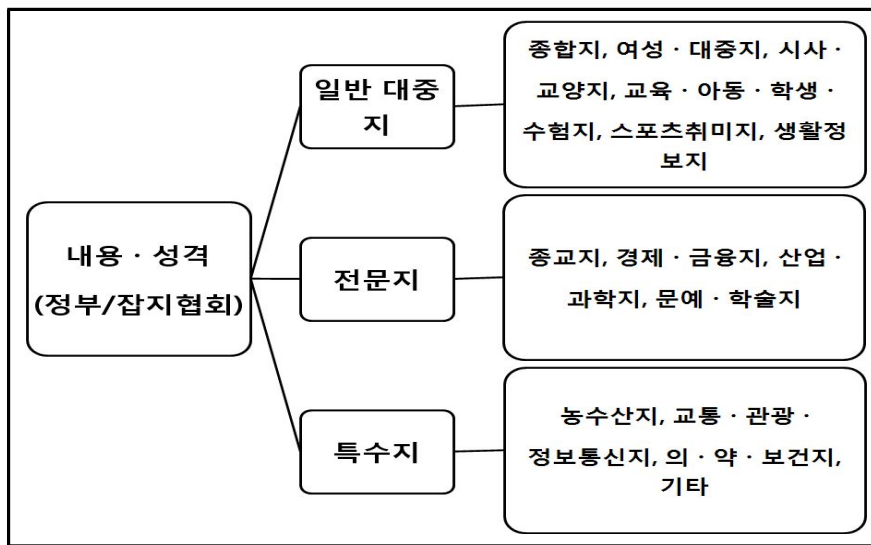
[표 3] 발행 기간에 의한 분류



14) 박신흥, <출판문화교육론>, 경인문화사, 1992, p.123

잡지를 내용상으로 분류할 때 어떤 유형으로 분류해야 할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대개 편의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선 대중지, 전문지, 특수지로 구분한다. 내용과 성격에 의한 유형(정부/잡지협회방식)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종합지, 여성·대중지(여성 종합지, 여성 교양지, 대중지), 시사·교양지(시사, 정치, 행정, 법률지, 일반 교양지), 교육·아동·학생·수험지(교육지, 아동지, 학생·청소년지, 수험지), 스포츠 취미지(스포츠, 레저, 취미), 생활정보지(의, 식, 주, 기타), 종교지(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 종교), 경제·금융지(경제일반, 금융, 증권, 보험, 무역, 물가, 세무, 경영), 산업·과학지(산업일반, 과학기술, 건설, 전기전자, 기계설비), 문예·학술지(문학, 예술, 문화일반, 학술), 농수산지(농림, 축산, 수산), 교통·관광·정보통신지(교통, 관광, 정보통신), 의·약·보건지(의학, 약업, 보건, 환경, 사회복지), 기타(사보, 학보, 회보, 노보)로 분류 한다 (표 4).¹⁵⁾

[표 4] 내용·성격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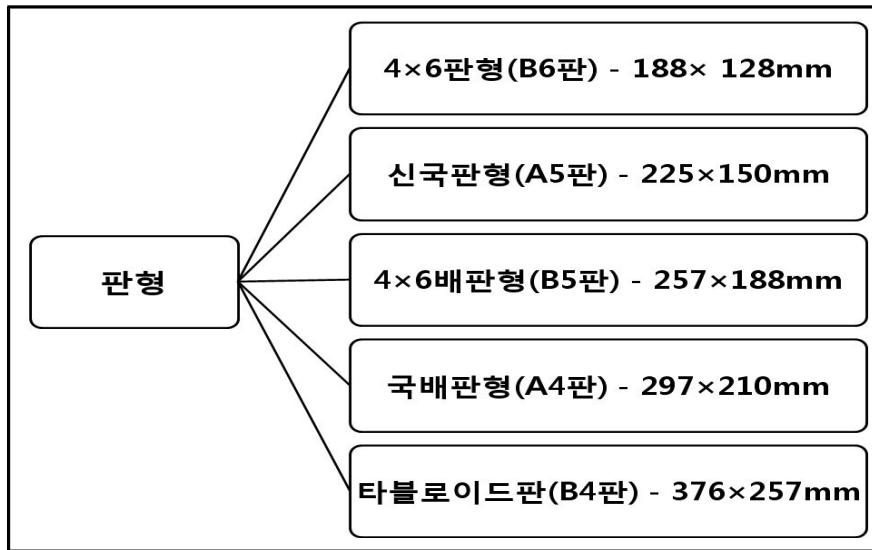


이 밖에 형태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판형에 따른 4×6판형(B6판) -

15) 고정기, 상계서, pp.70-72 요약

188×128mm의 포켓판, 신국판형(A5판) - 225×150mm, 4×6배판형(B5판) - 257×188mm, 국배판형(A4판) - 297×210mm, 타블로이드판(B4판) - 376×257mm이다. 제본 양식에 따른 책등에 풀칠하는 풀매기 잡지인 무선철, 책 가운데를 박음질하는 잡지(주간지, 기타 월간지 등)인 중철로 분류한다 (표 5).¹⁶⁾

[표 5] 판형에 의한 분류



(4) 잡지의 기능

잡지는 독자로 하여금 보다 깊이 생각하게 하고(to chew on) 보다 넓게 관찰하게 하고(to mull over) 식견을 넓혀서 이상을 추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러한 잡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뉴스보도(상보와 해설, 논설, 주장)의 기능이다. 신문과 방송은 시간 다툼을 할 정도로 시의성을 쫓아 보도하지만 잡지는 주간 또는 월간 등으로 간기가 있으므로 그만큼 시의성을 쫓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잡지

16) 고덕환, <한국도서편집론>, 삼지원, 1995, p.116

는 보도된 소식의 상세한 내용과 후속 기사를 정리해서 게재하는 상보(詳報)기능을 갖는다. 또 잡지는 한 사건의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균형 잡힌 가치 척도를 제시해 주는 논설을 신는다. 균형 잡힌 시각의 잡지일수록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¹⁷⁾

둘째, 논평 상보의 기능이다. 대중매체는 주변 환경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맡고 있다. 관찰자가 아니라 감시자의 입장에서 언론이 존재한다는 이 주장은 잡지와 같은 미디어일수록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잡지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보다 훨씬 다양하고 양적으로도 풍족한 지면을 가지고 있으며 논평과 주장, 상보와 해설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잡지의 다른 강점은 서로 상반된 주장이 조화롭게 실릴 수도 있는 묘미를 갖는다. 신문에 비해 잡지는 비교적 시의성 있게 세간의 화젯거리를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대비해 가며 자세하고 충실하게 게재할 수 있는 미디어이다.¹⁸⁾

셋째, 교육(전문지식 정보 제공)계몽 기능을 한다. 잡지의 또 다른 강점은 지면 이용의 자유로움이다. 사진과 그림, 도표에 대한 지면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을 이용하여 신문 방송이 실기 어려운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해설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잡지는 또 교육적인 기능을 갖는다. 초창기 한국의 잡지 발달사를 보면 구한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앞선 지식인들이 펼쳐온 대중 계몽 운동의 한복판에 잡지가 놓여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잡지는 단행본에 비해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문 방송에 비해 깊고 넓다. 이러한 측면이 잡지의 교육 기능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¹⁹⁾

넷째, 오락 제공 기능 - 스트레스 해소 기능을 한다. 잡지의 오락 제공 기능이야말로 독자를 유인하기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된다. 스포츠 · 섹

17) 유재천, <한국언론사상사 서설>, 지식산업사, 2011, pp.148-149 요약

18) 이광재 · 이경자 · 한균태 외, 상계서, p.11 요약

19) 강영심 외, <일제 시기 근대적 일상과 식민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p.230

스·쇼·코미디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다루는 잡지는 언제나 인기를 모아왔다. 황색 저널리즘이니, 연예 저널리즘이니, 쾌락 일변도의 센세이셔널리즘이니 하며 비판도 따르지만 인간의 가장 밑바닥 감성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순기능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²⁰⁾

다섯째, 광고 정보 제공 기능을 한다. 광고는 그 자체가 정보가 되는 것이 요즘의 시각이다. 기사가 별로 없는 잡지라도 독자는 광고를 보기 위해 잡지를 구매한다. 광고를 기사보다 더 열심히 읽고 보는 독자들도 적지 않다. 광고는 구매정보이자 패션을 읽는 눈이며 유행과 취미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명품을 보는 시각을 갖게 해 주며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준다.²¹⁾

잡지는 위에서 예로 든 것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의 창조와 전달이다. 그것이 고급문화이든, 대중문화이든 간에 잡지는 하나의 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전달하며 앞서서 견인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자기만족 기능, 정권이나 특정 집단의 정통성 강화 기능, 위협에 대한 예지 기능, 역사에 대한 기록 기능 등이 있다.

2.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개념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며 여러분야가 아닌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즐기고자하는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매체도 이에 발맞춰 다양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들은 전문성을 지닌 독자들로 모든 분야를 한곳에 모아놓은 종합잡지(綜合雜誌)와는 다르게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세분화 된 매체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문지(專門誌) 등장 배경이 되었다.

직업의 세분화, 새로운 취향이나 자유를 즐기는 세대의 등장, 그리고 젊

20) 채백, <출판학>, 한나래, 1999, p.60 요약

21) 이견실, <인쇄매체 광고디자인>, 나남, 1990, p.22 요약

은 지식층의 출현과 정보통신의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소수의 집단이나 동일한 관심을 가진 소수의 독자로 구성된 협소 시장을 겨냥한 전문지의 수가 계속 증가해왔다. 이러한 사회의 다양성과 함께 시사전문지, 경제전문지, 영화전문지, 음악전문지, 여행전문지, 미술전문지, 패션전문지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유형의 전문지들이 생겨나면서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²²⁾

전문지는 시간에 쫓기는 일간 신문이나 방송과는 달리 시사성 보도와 심층보도를 겸할 수 있어 일간지나 방송이 못다 한 기능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층을 세분화하여 전문 분야별로 그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종합 정보지와는 달리 독자의 계층과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분석, 독자 분석, 매체의 특징에 관한 분석이 매우 용이하고, 업계나 전문적 업무에 대해 심층보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취재 범위와 대상 독자가 한정되어 있고, 구독 및 광고 수입 면에서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²³⁾

안춘근²⁴⁾은 전문지란 어떤 특정한 분야를 집중 취재해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특정 분야라는 한계 때문에 동인지(同人誌)와 비슷한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안춘근이 말하는 전문지는 5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동인지적인 요소. 원래 동인지란 동일한 목적을 지니는 사람들이 함께 발행하는 잡지를 말하는데, 문학(文學)을 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인(同人)들의 구미에 맞는 내용일 필요가 있어 더욱 동인지로서의 요인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게시판(揭示板)적인 요소. 동인들의 공통 관심사를 집약한 게시판

22) 이광재 외, <매스컴과 사회>, 삼영사, 1984, pp.18-54

23) 박경숙, <국내 영화전문지 표지디자인의 시각표현에 관한연구 : 제호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8

24) 강원도 고성 출생, 성균관대 정치학과 졸업, 명예인문학 박사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블대학), 한국 출판학회 창립, 주요 저서 : <출판개론> · <출판사회학> · <한국서지학> 등 다수

과도 같이 서로의 관심, 서로의 흥미 등을 때를 놓치지 않고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보고서(研究報告書)적인 요소. 전문지는 저널리즘의 속성을 충분히 살리기 보다는 적어도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절충한 연구보고서와도 같은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지도계몽(指導啓蒙)적인 요소. 출판이 시대의 거울이라면 잡지는 문화발전의 프로펠러 구실을 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계몽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료보존(資料保存)적인 요소. 책을 영구보존하는 것처럼 잡지도 내용을 고찰해 볼 때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 바르고 알찬 내용이 적절하게 담겨있는 잡지여야 한다.²⁵⁾

잡지의 눈으로 말하자면 전문지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전문화의 시대이고 따라서 문명의 전문화, 세분화 속에서 인간은 분리되고 소외되고 있다는 등의 논리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다. 그래서 잡지의 전문화는 원래 그 성격이 명백한 전문지의 전문화로부터, 대중지의 전문화는 잡지의 역사에 있어서 극히 초기적인 것이고 이제는 사회계층별로 그리고 집단취향별로 구분되어 간다.

일반 대중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사회의 모든 현상을 취재의 대상으로 하여 모든 계층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목표로 하는데 비해 전문지는 그 지면에 독자의 성격이 나타나며 대상 독자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잡지이다. 전문지는 산업, 경제, 스포츠, 오락, 예술, 문화, 서적 등 취재 대상이 특수하거나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접해져 있고 따라서 취재의 방향은 각각의 업계 혹은 전문적 분야에 관한 보도, 해설, 논평을 주로하며, 일반지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파헤쳐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잡지이다.²⁶⁾

25) 안춘근, <잡지출판론>, 범우사, 1999, pp.74-77

26) 서화영, <우리나라 디자인 전문지 편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9

3.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역사

서양 음악 전문지의 역사는 정기적으로 발간되었던 악보집을 출판한 것에서 기원한다. 그 중 영국의 <성악 월간 마스크(Monthly Mask of Vocal Music, 1702)>, 독일의 텔레만(Tellemann)이 발간한 <진정한 음악 거장(Getreuer Music Meister, 1728)>, 힐러(Hiller. J. A.)가 발간한 <주간 음악 오락(Wöchentlicher musikalischer Zeitvertreib, 1759~60)>은 정기악보의 간행물들로서 신간서적 소개나 작품 비평, 이론적인 글들을 부록으로 포함하며 클래식 음악 전문지 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그 시대에는 일반 잡지의 단신이나 기사 같은 항목들이 종종 포함되었다.²⁷⁾

한국에 양악이 들어온 것은 1885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와 아펜젤러(Appenzeller)에 의한 것이다. 그 후 1893년 아펜젤러가 <찬송가>를 발행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의 첫 음악 출판물이다.

서양음악 유입 초기인 1919년 홍난파가 일본에서 유학시절 유학생들과 함께 <삼광>이라는 음악 전문지를 발간했다. <삼광>은 음악만을 다루지 않고 미술, 무용, 연극 등 전반적인 문화를 다루는 예술 종합지였으며 당시 대중들에게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알리려는 계몽적인 성향을 띄고 있었다.²⁸⁾

1925년 클래식 음악 전문지로서는 처음으로 홍난파가 <음악계>를 발간하였다. <음악계>는 계간으로 창간하였다가 다시 월간으로 변경하여 7호까지 발행하였고 그 후 일본 유학관계로 폐간되었다. 내용으로는 조선악계의 과거와 장래를 논하였고, 악성들의 변모, 작곡해설, 음악회 평, 알기 쉬운 상식 등이었다.²⁹⁾ 그리고 <음악계> 창간에 대한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새로운 기관 잡지 <음악계>를 창간하였는데 조선에서는 처음인 순전한 음악 잡지일 뿐 아니라 신작악보, 논평내용이 자못 풍부 하더라” 하였다.³⁰⁾

27) 이윤희, 월간 <The Piano - 우리나라의 음악 환경>, 음연, 2004, 3월호, p.96

28) 신도성, 월간 <객석 - 홍난파의 음악과 삶에 대한 쟁점>, 돌곶컴퍼니, 2010, 5월호, p.35

29) 송태욱, <홍난파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p.11

30) 이유선, <한국 양악 100년사>, 음악춘추사, 1985, p.145

<음악계>폐간 후 1934년 피아니스트인 최성두가 <음악>을 발행했으나 5호로 폐간되었다. 1945년 8.15 해방과 함께 박태현이 주재하는 한국음악문화사의 <음악문화>가 창간호로 단명하였고, 피아노 판매업자이던 김승태가 발행한 8면짜리 주간 <서울음악지>가 두 달을 넘기지 못하였다. 다음해 1946년에 발행했던 <예술통신>도 1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1950년 6.25 사변 시 해군 정훈음악대 시절 김생려, 김성태가 발행한 월간 <교향악>도 그 생명력이 길 수는 없었고, 국민 음악연구회에서 펴낸 <음악> 역시 두해를 넘기지 못하였다.³¹⁾

1958년경 출간되었던 최영환의 <음악문화>의 월간지가 3년을 겨우 넘겼고 수도 피아노사의 박중규가 호화로운 월간 <음악세계>를 발행했으나 1년 미만으로 폐간되었다.³²⁾ 1961년 국민음악연구회에서 발행한 <음악>은 본격적인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들 수 있다. 이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크기가 4×6배판으로 본격적인 잡지의 외형을 갖추었으며 내용 또한 홍보나 계몽적 성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클래식 음악 전문지 역시 반 년 만에 폐간되었다.³³⁾

위와 같이 1925년에서 1961년 사이에 여러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발행되었지만 모두 수명이 짧았던 것은 발행자나 편집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음악인들의 독서열 또한 낮았던 까닭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1960년대까지는 1,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으나 1970년대에는 금수현이 발행한 <월간음악>, 이병식의 <음악세계>, 전희준의 <교회음악>, 이성희가 발행한 비매품인 <레코드>, 오디오 음악 전문지 <레코드음악>등 여러 종류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발행되었고 80년대까지 발행하다가 하나둘씩 폐간 되었다.

1980년대에는 본격적인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시대가 열렸다. 1982년 피아노 전문 월간지인 월간 <피아노음악>이 발간되었으며 1984년 3월 <객

31) 음악연감편집위원회, <음악연감 : 음악70년사 · 무용40년 수록>, 세광출판사, 1966, p.41

32) 이유선, 상계서, p.254

33) 홍혜경, <한국 음악잡지의 발달과 그 성격에 관한 소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p.3

석>이 발간되었고, 같은 해 4월에는 동아일보사에서 <음악동아>가 창간되면서 음악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1990년 <음악저널>이 발간되었으며 그 중 <음악저널>과 <피아노음악>, <객석>은 지금까지 발간되고 있으며, 반면 <음악동아>는 10년이 지난 1995년 폐간되었다. 그 동안 문예연감에서 대략 한 해의 연주계와 음악계 대소사를 총 정리하던 때와는 달리 그때그때 음악계의 중요한 일들이 이 클래식 음악 전문지들을 통해서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음악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80년대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더욱 더 활성화되어 여러 종류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만들어졌다.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예술 전반에 대한 대중의 소유의지도 그 폭이 현저히 넓어져 공급도 다양해지게 된 것이다.³⁴⁾

1995년 음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음악춘추>가 발간되었으며, 피아니스트를 위한 전문지 <피아노음악>을 발간하는 음연에서 1999년 3월 영국의 라이선스와 계약을 맺고 현악인을 위한 전문지 <The Strad>의 국내판을 발간했다. 그러나 <The Strad>는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마스트미디어에서 발간되고 있다. 또한 음연에서는 <The Strad>를 견제한 현악 전문지 <String&Bow>를 2002년에 발간했으며 (주)마스트미디어에서는 2003년 <피아노음악>을 견제한 피아니스트를 위한 전문지 <International Piano> 국내판을 창간하였다.³⁵⁾

이 외에도 음악인들을 위한 음악 전문지로는 공연과 전시를 소개해주는 전문지들로 <The Music>, <Music Friends>, <Scene PLAYBILL>, <The Musical>이 있고, 음악 학원 경영을 위한 <EDUCLASSIC>, 교회음악과 성악을 위한 <CHOIR&ORGAN>,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라라(LARA)>, 재즈 음악 전문지 <Jazz People>, <MMJAZZ>와 플루트 전문지 <Flute&> 등이 발간되고 있다.

34) 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 <<http://www.culture-arts.go.kr/>>

35) 최반야, <국내 음악 전문 월간지에 대한 독자들의 만족도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음악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14

[표 6] 국내 음악 전문지의 역사

1885	한국에 양악이 처음 들어 옴 (언더우드, 아펜젤러)			
1893	<찬송가> 발행 - 한국의 첫 음악 출판물 (아펜젤러)			
발행(년)	전문지 명	발행인 / 발행처	특징	폐간
1919	삼광	동경유학중 발행 - 홍난파 · 유학생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을 다룬 예술 종합지	4호 발행 후
1925	음악계	홍난파	음악 전문지 첫 발간 / 계간으로 창간 → 월간	7호 발행 후
1934	음악	피아니스트 최성두		5호
1945	음악문화	음악 문화사 - 박태현	창간호로 폐간	
	서울음악지	피아노 판매업자 김승태	8면 짜리 주간	2달째
1946	예술통신			창간호
1950	교향악	해군 정훈음악대 - 김생려 · 김성태	월간	
	음악	국민음악연구회		2년 미만
1958	음악문화	최영환		3년 후
	음악세계	박중규	월간	1년 미만
1961	음악	국민음악연구회	본격적인 음악 전문지의 내용을 갖추	6개월
1970	월간음악	금수현		80년대까지 발행 후 하나둘씩 폐간
	음악세계	이병식		
	교회음악	전희준		
	레코드	이성희	비매품	
	레코드음악		오디오 음악 전문지	
1982	피아노음악	음연	피아노 전문지	
1984	월간객석	(주)돌꽃컴퍼니	객석으로 변경	

	음악동아	동아일보사		1995년
1990	음악저널	음악저널		
1995	음악춘추	음악춘추사		
1999	The Strad (국내판)	음연	현악 전문지	2002년 2월부터 (주)마스트미 디어 발간
2002	String&Bow	음연	현악 전문지	
	Flute&Flutist	Flute house	Flute&으로 변경	
2003	International Piano(국내판)	(주)마스트미디어	피아노 전문지	

4.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특성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특성으로는 첫째, 클래식 분야를 대상으로 할 것, 둘째, 클래식 관계자를 독자로 할 것, 셋째, 클래식 분야의 이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 넷째, 클래식 분야의 개발에 유의해야 할 것, 다섯째, 문제점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은 클래식 분야이다. 현대 사회는 복잡 · 다양한 사회 구조와 함께 극도로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 따라 클래식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 전문지도 이에 부응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존재해야 하며, 전문지에 해당 되는 분야의 대상에 전문적인 정보를 취재하여 제공하는 기능과 지도의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³⁶⁾

둘째, 독자는 클래식 분야의 관계자이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라 하더라도 클래식에 관심이 있는 일반대중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격상 연주자와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음악계 관계자라 하

36) 오진환, 상계서, p.151

더라도 그 구성원이 되는 개개인으로서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내어야 한다. 따라서 그 내용은 일반지보다 넓고 깊은 심층보도를 권위 있는 내용으로 해야 한다.³⁷⁾

셋째, 클래식 분야의 이익증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속해 있는 클래식 분야의 발전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 자체의 발전에 연결되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항상 클래식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익증대라 하는 것은 목적의 근시안적인 이익 추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차원 높은 견지에서 장래를 통찰하는 시야를 갖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클래식 분야의 개발에 유의해야 한다. 이익 증진과 같이 클래식 분야의 개발도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커다란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여 종합적인 질적 향상을 하는데 있다. 따라서 좋은 이해자이며 한편으로는 공정한 비판의 입장에서 엄한 충고도 하여야 한다.³⁸⁾

다섯째, 문제점을 발굴해야 한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일반잡지와 같이 취재대상의 일반성은 없으며 또 필요하지 않다. 클래식의 특정 분야 즉, 특정 분야의 요소와 밀착하여 그 특정 분야가 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그러나 그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일차적인 정보전달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거나 평론을 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³⁹⁾

이 외에도 특성상 유가지(乳痲誌)와 무가지(無價誌)로 나누어지며, 판매 방식이나 판매루트(root)가 일반잡지와는 다르다는 특성도 갖고 있다. 우송이나 예약구독이 많다는 점이 그 것이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취재범위와 대상 독자가 한정되어진 영역 내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

37) 이제식, <잡지기획과 편집디자인> 미담북스, 2006, p.3

38) 전영표, 상계서, p.167

39) 김성은, <국내 클래식 음악 잡지 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10-11요약

은 광고 수입의 면에서 제한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특정 기사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는 기사, 읽을 수 있는 기사 선택의 자유성과 재독(再讀)의 가능성도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⁴⁰⁾

40) 최진우, <한국 지방 신문에 관한 연구>, 기념논총, 1975, p.151

Ⅲ. 클래식 음악 전문지 현황 및 내용 분석

1. 클래식 음악 전문지 선정 과정

2012년 3월 현재 문화관광부 정기 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음악 전문지는 총 76종으로⁴¹⁾ 그 중 매월 발행하는 음악 전문지는 총 32종,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총 8종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대형서점인 교보문고 7개 지점, 영풍문고 6개 지점, 반디앤루니스 9개 지점, 북스리브로 4개 지점, 총 26개 지점 가운데 규모와 인구 유동성을 고려해 18개 지점을 선택하였다. 단, 대학 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점들은 제외 하였다. 18개 지점을 선정한 후에 서점에서 실제 배포되어 판매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전부 조사하였다 (표 7).

[표 7] 대형 서점 중 조사한 지점

서점	지점 명(점)	합계
교보문고	광화문, 강남, 잠실, 목동, 영등포	5
영풍문고	종로, 강남, 미아, 명동, 김포공항	5
반디앤루니스	코엑스, 종로타워, 사당역, 목동, 롯데스타시티	5
북스리브로	돈암, 을지로, 홍대	3

교보문고는 4개의 대형서점 가운데 가장 많은 18종의 음악 전문지를 판매하고 있었다. 영풍문고는 14종이 있었고, 반디앤루니스는 13종, 북스리브로는 10종의 음악 전문지가 판매되고 있었다 (표 8).

41) 문화관광부 정기 간행물 등록사 현황 (2011년 11월 30일 기준)

[표 8] 지점 별 음악 전문지의 분포 표

번호	서점 음악 전문지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북스리브로
		(광·강·잠·목·영)	(중·강·미·명·김)	(코·중·사·목·롯데)	(돈·을·홍)
1	객석	4 (광·강·잠·영)	2 (미·김)	3 (코·중·롯데)	1 (을)
2	음악저널	2 (광·강)	4 (중·강·명·김)	5 (코·중·사·목·롯데)	2 (돈·을)
3	음악춘추	4 (광·강·잠·목)	1 (명)	2 (코·중)	1 (을)
4	Flute&	2 (광·강)	2 (중·강)	2 (코·롯데)	
5	String&Bow	5 (광·강·잠·목·영)	5 (중·강·미·명·김)	4 (코·중·목·롯데)	3 (돈·을·홍)
6	The Piano	5 (광·강·잠·목·영)	5 (중·강·미·명·김)	3 (코·중·롯데)	2 (돈·을)
7	The Strad	2 (광·강)	1 (강)	2 (코·중)	1 (을)
8	Jazz People	5 (광·강·잠·목·영)	5 (중·강·미·명·김)	4 (코·중·목·롯데)	2 (돈·을)
9	MMJAZZ	5 (광·강·잠·목·영)	5 (중·강·미·명·김)	4 (코·중·사·롯데)	2 (돈·을)
10	라라(LARA)	5 (광·강·잠·목·영)	1 (명)	2 (코·중)	1 (을)
11	The Musical	3 (잠·목·영)	1 (명)	2 (목·롯데)	2 (을·홍)
12	Scene PLAYBILL	1 (광)	2 (중·강)	2 (코·중)	
13	International Piano	3 (광·강·영)		2 (코·중)	
14	CHOIR&ORGAN	2 (광·강)	2 (중·강)		

15	The Music	2 (광·잡)	2 (총·강)		
16	EDUCLASSIC	4 (광·잡·목·영)			
17	Music Friends	4 (광·강·잡·목)			
18	REVUE	1 (광)			
합계 (총)		18	14	13	10

※ 각 지점의 첫 글자를 제시하였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객석>, <음악저널>, <음악춘추>, <Flute&>, <International Piano>, <String&Bow>, <The Piano>, <The Strad> 8종으로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에는 8종 모두가 배포되어 있었고, 북스리브로는 <Flute&>을 제외한 7종이 배포되고 있었다.

또한 재즈 음악 전문지 <Jazz People>, <MMJAZZ>와 국악 음악 전문지 <라라(LARA)>, 공연 전문지 <The Musical>는 대형서점 4곳 모두에 배포되고 있었다. 공연·전시 전문지 <Scene PLAYBILL>은 북스리브로를 제외한 3곳의 대형서점에 모두 배포되어 있었지만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회 음악과 성악 전문지 <CHOIR&ORGAN>, 공연 음악 전문지 <The Music>은 대형서점 2곳에 배포되고 있었다. 또한 피아노 음악 전문지 <International Piano>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이지만 대형서점의 2곳에만 배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음악학원 경영을 위한 음악 전문지 <EDUCLASSIC>, 공연 음악 전문지 <Music Friends>, <REVUE>는 교보문고 한 곳에서만 판매되고 있었다. 대형서점에 배포되는 음악 전문지의 종류는 서점의 종류와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같은 이름의 서점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음악 전문지의 종류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 전문지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

2. 클래식 음악 전문지 현황

각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현황에 대한 표는 창간 년·월, 발행처, 통권(호)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현황에 대한 설명은 해당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제시되지 않는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1) 객석

[표 9] <객석> 현황

창간	1984년 3월호	발행처	㈜돌꽃컴퍼니	통권(호)	337호
----	-----------	-----	--------	-------	------

[그림 1] <객석> 표지



1984년에 창간된 종합 예술교양 전문지이다. 1984년 3월에 <월간 객석>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으며, 뒤에 <객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국내

판이며 발행처는 (주)돌꽃컴퍼니, 발행인은 윤석화이다.

예술애호가를 주 독자층으로 하여, 그 숫자를 늘리고 예술적 교양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 창간 목적이다. 음악 · 레코드 · 연극 · 뮤지컬 · 무용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장르를 소개한다. 이와 관련된 미술 · 음악 · 영화 등에 관한 기사도 다룬다. 또한 전 세계 통신원들의 생생한 현지 취재, 최고 필진의 권위 있는 평론, 빠르고 정확한 기사, 세련되고 감각적인 레이아웃을 제공한다. 기획 기사로 예술정책과 예술계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비롯하여 매호마다 화제작에 관한 비평과 해외 예술정보 등을 다양하게 꾸몄다. 논문으로는 <음악인의 의식구조 백서>, <한국 연극, 그 현실수용의 한계>, <해방공간의 한국음악사>, <한반도, 통일예술을 모색 한다> 등을 실었다.⁴²⁾

(2) 음악저널

[표 10] <음악저널> 현황

창간	1989년 3월호	발행처	음악저널	통권(호)	267호
----	-----------	-----	------	-------	------

42) <객석> 홈페이지 <<http://www.gaeksuk.com/>> 요약

[그림 2] <음악저널> 표지



1988년 4월 2일에 주간으로 창간하였다가 1989년 월간 <음악저널>로 제호를 변경한 클래식 음악 전문지이다. 국내판이며 발행처는 음악저널, 발행인은 이남진이다. <음악저널>은 사실대로 바른 정보를 전하는 새로운 음악 언론을 천명하였고, 그간에 음악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역사기록으로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보도해 온 정직한 기록자의 역할을 해온 전문지이다. <음악저널>의 주요 내용으로는 음악 정책에 제안하기, 음악계의 각종 사건 분석과 정보를 기록하며 고급 음악정보를 전하고 바른 평가를 하는 일을 하고, 전문적인 비평을 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외에 현재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는 첫째, 신인음악상을 제정하여 매년 1월 시상하고 있다. 둘째, 음악저널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를 매년 7월 운영하고 있다. 셋째, <음악저널>을 발행하고 있고, '작은 우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음악 전문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넷째, 음악의 유격훈련이라는 단기 특수 음악 교육을 시키는 여름음악캠프를 매년 8월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가곡을 세계화하기 위한 운동 차원의 작업으로 대한민국 가곡제를 창립 운영하고, 한국 가곡의 르네상스를 목표로 국민 가곡제를 운영하

고 있다. 여섯째, 우수연주자 초청음악회, 신춘음악회 등을 통해 신인 연주자들의 음악계 데뷔 길을 열어주고 있다.⁴³⁾

(3) 음악춘추

[표 11] <음악춘추> 현황

창간	1995년 4월호	발행처	음악춘추사	통권(호)	199호
----	-----------	-----	-------	-------	------

[그림 3] <음악춘추> 표지



1995년 4월에 창간된 음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로 원로피아니스트 정진우가 월간 <음악춘추>를 창간하였다. 국내판이며 발행처는 음악춘추사, 발행인은 노창영이다. 창간호는 한국 실내악의 현주소와 탄생, 1백 50주년기념 차이코프스키 연구를 특집으로 꾸몄다.⁴⁴⁾ 음악 전

43) <음악저널> 홈페이지 <<http://www.eumakjournal.co.kr/>> 요약

44) 동아일보 기사 : 1990년 4월 12일

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에서부터 관현악 연주자, 작곡가, 성악가들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다.

월간 <음악춘추>를 발행 하고 있는 음악춘추사는 매년 피아노, 성악, 관현악의 콩쿠르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름음악캠프도 주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음악에 관련된 도서들도 함께 발행하고 있다.⁴⁵⁾

(4) Flute&

[표 12] <Flute&> 현황

창 간	2002년 2월호	발행처	Flute house	통권(호)	59호
-----	-----------	-----	-------------	-------	-----

[그림 4] <Flute&> 표지



2002년 2월에 창간된 플루트 음악 전문지이다. <Flute&Flutist>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으며, 뒤에 <Flute&>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국내판이며

45) <음악춘추> 홈페이지 <<http://www.eccs.co.kr/>> 요약

발행처는 Flutehouse이며, 발행인은 박해성이다.

<Flute&>은 이제 해외의 플루티스트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찾도록 하고, 한국 플루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주목 받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가이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또한 가장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플루트문화 존재 자체의 자부심을 지켜 나가고 있다. 46)

(5) String&Bow

[표 13] <String&Bow> 현황

창간	2002년 2월호	발행처	(주)음연	통권(호)	157호
----	-----------	-----	-------	-------	------

[그림 5] <String&Bow> 표지



2002년 2월호로 창간된 현악 전문지 <String&Bow>는 국내판이며 발행처는 (주)음연, 발행인은 정진우이다. 1993년 3월호로 창간된 현악 전문지

46) <Flute&> 홈페이지 <<http://flutehouse.blogspot.com/>> 요약

<The Strad>가 2002년 2월부터 (주)마스트미디어에서 발간됨에 따라 그를 잇는 현악 전문지 월간 <String&Bow>를 (주)음연에서 발간하게 되었다. <The Strad>를 모체로 발간하게 된 월간 <String&Bow>는 국내외 현악계 동향, 음악교육, 악기정보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 전공 학생층으로부터 최고의 인기와 신뢰를 얻고 있다.

<String&Bow>를 발행하고 있는 (주)음연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 발간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종 음악관련 행사 및 공연 사업, 교육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는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문화기업이다.⁴⁷⁾

(6) The Piano

[표 14] <The Piano> 현황

창간	1982년 4월호	발행처	(주)음연	통권(호)	360호
----	-----------	-----	-------	-------	------

[그림 6] <The Piano> 표지



47) <String&Bow> 홈페이지 <<http://www.eumyoun.com/>> 요약

1982년 4월호로 창간된 피아노 전문지이다. 월간 <The Piano>는 국내외 피아노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 전반에 관한 교양을 다루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이다. 국내판이며 발행처는 (주)음연, 발행인은 정진우이다.

<The Piano>를 발행하는 (주)음연의 음악 사업부에서는 국내외 중견음악인들의 음악회를 기획하고 수준 높은 음악 무대를 마련하고, 음연 콩쿠르, 음연 축제, 피아노 아카데미, 젊은이의 음악제, 페다고지 등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교육 사업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 음악인재들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키워내고 있다.⁴⁸⁾

(7) The Strad

[표 15] <The Strad> 현황

창간	2002년 2월호	발행처	(주)마스트미디어	통권(호)	157호
----	-----------	-----	-----------	-------	------

48) <The Piano> 홈페이지 <<http://www.eumyoun.com/>> 요약

[그림 7] <The Strad> 표지



2002년 2월호로 발행된 <The Strad Korea>는 1890년 영국에서 창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 <The Strad>의 한국판이다. 발행처는 (주)마스트미디어, 편집장은 최혜정이다.

현악 전문지로서 그 어떤 전문지도 <The Strad>와 견줄 수 없는 권위를 지녔고, <The Strad>의 기사들은 진지하고 학술적인 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매달 영국에서 전송된, 생생한 기사들을 만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스트라디바리우스, 델 제수 같은 악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만나 볼 수 있다.

<The Strad>를 발행하고 있는 (주)마스트미디어는 2000년 11월 설립 이래 세계 최고의 음악 평론지 <그라모폰(Gramophone)>, 현악 전문지 <The Strad>, 국제 피아노 음악계의 핫 이슈를 전하는 <International Piano>에 이르는 영국의 유서 깊은 클래식 음악 전문 월간지 3종의 한국판을 소개, 고품격 라이선스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전문 발행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원전 악보의 대명사인 독일 헨레 에디션(Henle Edition)의 국내 보급을 포함, 음악 교육과 매니지먼트 사업 그리고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공연 기획을 통해 폭넓은 문화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헨레 에디션의 공급은 그동안 불분명한 악보로 작곡가의 의도에서 벗어난 교육을 받고 있던 국내 음악 교육의 현실을 바로잡고, 음악 애호가와 전공자를 위한 올바른 길잡이를 지향하고 있다. 또 음악인을 위한 아카데미와 콩쿠르를 통해 국내 음악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⁴⁹⁾

3. 클래식 음악 전문지 내용 분석

설문 조사에 앞서서 현재 발간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 <객석>, <음악저널>, <음악춘추>, <Flute&>, <String&Bow>, <The Piano>, <The Strad> 총 7종을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7종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 2012년 3월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석 단위는 각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쪽 수와 백분율로 하였다.

(1) 객석

[표 16] <객석> 분석 표

객석	공 연 소 식	공 연 평	광 고	도 서	독 자 참 여	동 향	음 반	인 터 뷰	지 식 습 득	칼 럼	기 타	합 계
쪽	30	24	20	1	1	15	1	29	8	15	22	166
비율 (%)	18.1	14.5	12.0	0.6	0.6	9.0	0.6	17.5	4.8	9.0	13.3	100

49) <The Strad> 홈페이지 <<http://www.mastmedia.co.kr/>> 요약

· 발레 · 오페라 ·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이 실려 있었다. 기사의 내용 중에는 해외에서 공연되었던 오페라 ‘푸치니’ 공연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 무대 장치와 조명, 배우들의 공연 모습, 관객들의 반응까지 기사로 다루고 있어서 다른 전문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외 공연 소식을 상세히 다룰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통신원들이 있어서 현지 취재 인터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높은 17.5%의 비율로 다루어진 인터뷰 기사 중에는 예술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예술가 이외에도 극장장을 비롯하여 연출가, 작가와 같은 음악계 종사자들을 심층 있게 인터뷰하여 흥미를 더 한 부분이었다.

<객석>은 광고의 부분도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예술 분야와 연계되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다. <객석>의 광고는 화장품, 가전제품, 시계, 백화점, 레스토랑, 카드회사의 광고 등 예술애호가들이 주 소비자층으로 있는 상품 광고를 위주로 하였다.

(2) 음악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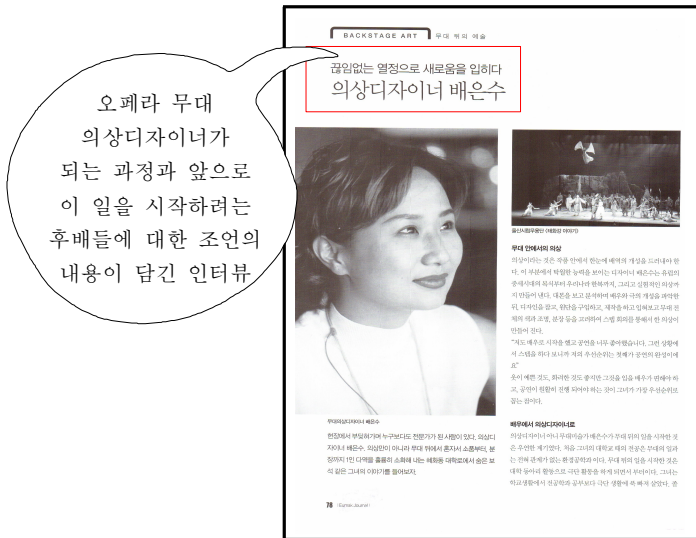
[표 17] <음악저널> 분석 표

음악 저널	공 연 소 식	공 연 평 평	광 고	기 획 기 사	동 향	음 반 · 도 서	인 터 뷰	입 학 정 보	지 식 습 득	음 악 축 제	칼 럼	콩 쿠 르	기 타	합 계
쪽	47	20	8	4	26	1	19	3	13	2	11	2	8	164
비율 (%)	28.7	12.2	4.9	2.4	15.9	0.6	11.6	1.8	7.9	1.2	6.7	1.2	4.9	100

[그림 10] <음악저널> 오페라 무대 의상 디자이너 인터뷰



[그림 11] <음악저널> 음악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 사고 기사



<음악저널>은 공연소식을 다루는 내용이 가장 높은 28.7%비율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서울 지역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공연 소식을 알려주는 부

분이 다른 전문지와는 차별화 되어 있었고, 단순히 공연일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었다. 또한 음악계의 동향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음악계의 인물 혹은 음악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전문지 전체의 내용이 클래식 음악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폭 넓은 클래식계의 소식을 더 깊이 있게 다루었다.

오페라 배우에서 오페라 무대 의상 디자이너로 직업을 전환한 인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하여 음악계의 또 다른 직업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음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전문인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비평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다른 전문지에서도 이와 같은 음악계에 일어나는 사건의 기사를 싣고 있었지만, <음악저널>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음악저널>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음악정책에 제안하기’라는 부분 때문 이다.

(3) 음악춘추

[표 18] <음악춘추> 분석 표

음악 춘추	공 연 소 식	공 연 평	광 고	기 획 기 사	인 터 뷰	지 식 습 득	음 악 축 제	칼 럼	콩 쿠 르	기 타	합 계
쪽	43	2	6	12	65	9	3	7	6	3	156
비율 (%)	27.6	1.3	3.8	7.7	41.7	5.8	1.9	4.5	3.8	1.9	100

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음악춘추>의 전체는 156페이지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41.7%의 높은 비율의 인터뷰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와 연주단체의 무대 경험을 비롯한 연주 방법 등과 동향을 알 수 있었지만, 인터뷰 내용과 사진이 각 한 페이지로 다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사진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연소식에 대한 기사에서도 사진의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었고, 내용면에서는 인터뷰 기사의 형식과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기획기사가 7.7% 비율이었지만, 공연소식과 인터뷰에 비해 많이 부족하였다. 그 외의 내용들 또한 공연소식과 인터뷰 내용에 비해 기사의 내용들이 빈약하였으며, 전문지의 전체 내용이 비슷한 형식의 인터뷰와 공연소식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사들과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4) Flute&

[표 19] <Flute&> 분석 표

Flute &	공연소식	공연평	광고	기획기사	음반	인터뷰	지상레슨	지식습득	음악축제	칼럼	기타	합계
쪽	17	3	21	6	5	19	20	5	2	1	25	124
비율 (%)	13.8	2.4	16.9	4.9	4.0	15.3	16.1	4.0	1.6	0.8	20.2	100

[그림 14] <Flute&> 재즈연주 마스터 클래스

[그림 15] <Flute&> 국내·국외 음반발매 안내

<Flute&>은 플루트 전문지이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이 플루트만을 다루고 있다. 표지에는 표지에 실린 플루티스트의 이름만을 말해주고 있으며, 전

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표지 왼쪽의 하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다른 전문지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던 장애우를 위한 안내가 있었다.

<Flute>은 전체의 내용 중 광고가 제일 높은 16.9%의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광고는 플루트에 관련된 제품 혹은 플루트악기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 기사는 지상레슨이다. 클래식만이 아니라 재즈에 대한 연주 방법과 악보를 신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 지상레슨의 방식인 악보를 기재하고 그 위에 중요한 연습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스터 클래스를 받는 것처럼 충분한 설명과 함께 악보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곡을 플루트 중주 연주를 위한 곡으로 편곡을 하여 악보를 제시하는 부분도 다른 음악 전문지에서는 볼 수 없던 내용이었으며, 악보와 음반에 대한 기사 역시 국내·국외의 모두 플루트만을 소개하고 있었다. 기타로 분류 한 기사에 속해있는 페이지에는 현지 유학생의 생활을 인터뷰한 것을 통해 유학 정보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신고 있는 것 또한 다른 클래식 음악 전문지와는 차별화 된 기사였다.

(5) String&Bow

[표 20] <String&Bow> 분석 표

String & Bow	공연 소식	공연 평	광고	기획 기사	독자 참여	동향	도서	음반	인터뷰	지상레슨	지식습득	음악축제	칼럼	콩쿠르	기타	합계
쪽	56	3	7	29	1	7	1	1	8	8	4	1	5	3	8	142
비율 (%)	39.4	2.1	4.9	20.4	0.7	4.9	0.7	0.7	5.7	5.7	2.8	0.7	3.5	2.1	5.7	100

[그림 16] <String&Bow> 창간10주년 기획기사



창간 10주년 특별 기획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의 역사와 특성을 소개

[그림 17] <String&Bow> 공연 소식



전문지의 모든 공연 일정 소개를 오른쪽 하단에 기재하고 있음

특별 기획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의 역사와 특성을 소개

<String&Bow>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특집 기사로 ‘현악기의 모든 것, 선택부터 관리까지’를 시리즈로 엮으면서 첫 번째로 현악기의 역사와 특성, 구조에 대해서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

스의 순서로 악기의 역사를 설명하고 악기에 사용되는 나무와 활의 특성, 악기의 용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른 특집 기사로 비올라 협주곡 힌데미트의 ‘백조고기를 굽는 사나이’에 대한 작품의 배경과 작품분석, 다양한 명연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연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었다.

<String&Bow>는 공연소식이 39.4%로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었고 이 부분에서는 모두 현악의 연주자들과 단체가 소개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 페이지 모두를 사진으로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공연소식의 오른쪽 하단부분에 위치한 간단한 공연일정 소개 내용은 글씨의 방향이 독자가 정면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불편 하였다.

(6) The Piano

[표 21] <The Piano> 분석 표

The piano	공연 소식	공연 평	광고	기획 기사	독자 참여	동향	도서	음반	인터뷰	지상레슨	지식습득	음악축제	콩쿠르	기타	합계
쪽	39	9	20	21	1	11	1	1	43	19	6	1	3	7	182
비율 (%)	21.4	4.9	10.9	11.5	0.6	6.0	0.6	0.6	23.6	10.4	3.3	0.6	1.7	3.9	100

[그림 18] <The Piano> 공연 소식



공연포스터의 사진이 그대로 사용되며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음, 이처럼 공연 소식과 인터뷰의 중복되는 사진이 12번 있음

[그림 19] <The Piano> 공연 소식과 같은 사진과 인터뷰 기사



<The Piano>는 분석하는 7종의 전문지 가운데 가장 많은 페이지 수인 182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다. 공연소식을 다루는 기사에서 공연 포스터를 한

페이지 전체에 실려 있고, 인터뷰 기사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공연소식에 사용되었던 공연포스터 그대로를 한 페이지에 실고 있었다. 이러한 중복되는 공연소식과 인터뷰 기사가 오윤주 피아노 독주회 7p · 42p, 최세영 피아노 독주회 15p · 56p, 이정민 귀국 피아노 독주회 26p · 65p, 신은숙 피아노 독주회 27p · 64p, 백수진 피아노 독주회 34p · 64p, 한희연 피아노 독주회 35p · 65p, 이보경 피아노 독주회 52p · 64p, 김미성 귀국 피아노 독주회 53p · 64p, 박규연 피아노 독주회 61p · 67p, 정혜경 피아노 독주회 63p · 66p, 한국 피아노 듀오 협회 제49회 정기연주회 65p · 67p, 아르모니아 피아노 앙상블 창단 연주회 66p · 77p로 총 12번의 중복되는 사진과 기사가 나오며, [그림 18]의 사진은 전체 3번에 걸쳐 중복되는 사진과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인터뷰와 공연소식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획기사는 최근 6년 동안의 대학 입시 곡 10곡을 선정하여 매월 하나의 작품을 소개 해 주고 있는데, 이 기사에는 작곡배경과 작품분석, 페다고지 시각의 접근, 출제 의도, 추천음반으로 분류하고 출제되었던 학교를 안내한다. 곡의 1마디부터 마지막 마디를 19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고 출제 의도를 밝힘으로 이곡의 포인트를 알게 되어 스스로 연습 할 수 있다. 또 이곡을 출제한 학교의 학생을 인터뷰하는 방법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전문지 대부분의 내용이 피아노에 관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사진과 기사들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피아노 전문지의 역사에 맞게 피아니스트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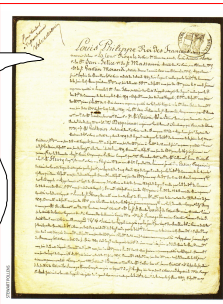
(7) The Strad

[표 22] <The Strad> 분석 표

The Strad	공연 소식	공연 평	광고	기획 기사	동향	음반	인터뷰	입학 정보	지상 레슨	지식 습득	음악 축제	칼럼	콩쿠르	기타	합계
쪽	64	7	17	9	5	4	12	1	19	12	1	3	4	6	164
비율 (%)	39.0	4.3	10.4	5.5	3.1	2.4	7.3	0.6	11.6	7.3	0.6	1.8	2.4	3.7	100

[그림 20] <The Strad> 파가니니의 생활에 대한 기사

파리 왕립법원에서 작성한 판결문의 첫 장 카지도 파가니니의 파산과 청산에 관련된 부분



파가니니는 스스로도 인정한 도박중독이었다. "나는 몇 차례의 연주회로 번 수익금을 하루저녁에 날려버리곤 했다"

1839년 7월 19일 파리의 왕립법원에서 파산하는 카지도 파가니니의 파산과 청산에 관련된 부분. 이 판결문은 파가니니가 파산한 이유와 청산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파가니니는 스스로도 인정하는 도박 중독으로 인해 번 수익금을 하루저녁에 날려버리곤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니가 도박에 빠져 살던 당시의 모습과 그로 인하여 연주 생활은 어떻게 하였는지, 파가니니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으며, 실제 파리 왕립법원에서 작성하였던 판결문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4. 종합 토론

[표 23]은 총 7종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모든 기사들을 조사한 후 분류하여 만든 것이다.

[표 23] 클래식 음악 전문지 분석 표

구분 분류	객석	음악 저널	음악 춘추	Flute &	String &Bow	The Piano	The Strad
공연소식	30	47	43	17	56	39	64
공연 평	24	20	2	3	3	9	7
광고	20	8	6	21	7	20	17
인터뷰	29	19	65	19	8	43	12
지식습득	8	13	9	5	4	6	12
음반	1	1		5	1	1	4
기획기사		4	12	6	29	21	9
음악축제		2	3	2	1	1	1
칼럼	15	11	7	1	5		3
콩쿠르		2	6		3	3	4
동향	15	26			7	11	5
지상레슨				20	8	19	19
도서	1				1	1	
독자참여	1				1	1	

입학정보		3					1
기타	22	8	3	25	8	7	6
총 페이지	166	164	156	124	142	182	164

클래식 음악 전문지 7종의 표지를 살펴보면, <객석>, <음악저널>, <String&Bow>, <The Piano>의 경우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전문지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 <음악춘추>의 표지에는 표지 인물에 대한 소개만을 게재하고 있으며, <Flute&> 역시 표지에 표지 인물의 이름만을 소개하고 있지만, 표지의 왼쪽 하단부분에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다른 전문지와 차별화 되고 있다. <The Strad>는 표지 소개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전문지와는 차별화 된 것이다.

기사를 종류 별로 분석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지 전체의 페이지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가장 많은 페이지 수를 가지고 있었던 전문지는 <The Piano>, 가장 적은 페이지 수를 가지고 있는 전문지는 <Flute&>이었다. <The Piano>는 182페이지, <Flute&>은 124페이지로 둘의 차이는 60여장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Flute&>은 격 월간지인데도 월간지인 <The Piano>에 비해 분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 이유는 총 7종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내용을 [표 23]과 같이 16개로 분류 하였을 때 <The Piano>는 ‘칼럼’과 ‘입학정보’에 관한 2개의 기사 내용을 제외한 14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포함된 기사들은 다른 전문지들과 비교하였을 때, 페이지 수가 많은 편에 속해있었다. <Flute&>은 ‘콩쿠르’, ‘동향’, ‘도서’, ‘독자참여’, ‘입학정보’에 관한 5개의 기사 내용을 제외한 11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포함된 내용의 기사 페이지는 다른 전문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내용면에서는, <The Strad>가 공연소식을 전체 164장 중 64페이지를 다루고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었다. <Flute&>은 17페이지의 공연소식을 다루고 있었으며 이는 분석한 다른 6종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공연소식이 평균 42.2%인 것에 비하여 <Flute&>은 13.8%로 상당히 낮은 비율이었으며, <Flute&>의 광고가 16.9%로 공연소식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공연 평은 <객석>이 24페이지로 가장 많았고, <음악춘추>는 2페이지로 가장 작은 부분을 다루고 있었다. <객석>은 클래식 음악 공연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악, 뮤지컬, 연극, 오페라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연 평이 다른 전문지에 비해 분량이 많았다.

광고의 경우 <Flute&>이 21페이지로 가장 많았고, <음악춘추>가 6 페이지로 가장 적게 나타났지만 <Flute&>은 전체 페이지 수가 가장 적은 전문지 이므로 상대적으로 광고의 비율이 더 높다. 모든 광고는 플루트에 관련된 제품과 플루트 관련 악기사에 관한 것으로, <음악저널>, <음악춘추>, <String&Bow>, <The Piano>, <The Strad>의 전문지들과 같이 음악과 악기에 관련된 광고를 싣거나, <객석>과 같이 음악 외의 화장품 혹은 레스토랑 등 그 밖의 광고를 싣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음악춘추>가 65페이지로 다른 전문지들과 최소 20페이지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많은 부분이 다루어져 있었고, <String&Bow>에서는 가장 적게 8페이지가 다루어져 <음악춘추>와는 50페이지 이상이 차이 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춘추>에서 연주자와 연주단체의 동향과 그 밖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었지만, 인터뷰의 내용과 함께 게재되는 사진이 한 페이지 전체로 다루어져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연소식을 알려주는 기사 역시 한 페이지의 절반이 사진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 공연소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인터뷰의 기사와 차이가 없었다.

지식습득의 경우 <음악저널>이 13페이지로 가장 많은 기사를 다루고 있었고, <String&Bow>에서 4페이지로 가장 적게 다루고 있었다. <음악 저

널>에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The Magic Flute : Die Zauberflöte)>의 후편인 <미로(The Labyrinth)>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음반의 발매와 음반에 대한 내용을 신는 기사에서는 <Flute&>이 5페이지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내의 음반은 물론 국외의 음반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다. <Flute&>의 내용 모두는 플루트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으므로, 국내·국외의 음반들 역시 모두 플루트의 음반만을 소개 하고 있었다. <음악춘추>에서는 그에 관련된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기획기사에서는 <String&Bow>가 29페이지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현악기의 모든 것, 선택부터 관리까지’라는 제목의 시리즈 중 첫 번째인 현악기의 역사와 특성, 구조에 대한 특집 기사와 명곡들을 선정하여 그 곡에 대한 작품 배경, 작품 분석, 다양한 명연을 소개하고, 연주 방법에 대한 특집 기사 또한 시리즈로 다루고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의 기획기사가 실려 있었다. <객석>의 경우에는 기획 기사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음악 축제에 대한 기사는 7종의 전문지 모두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비슷하였지만 그 중 <음악춘추>가 가장 많은 3페이지의 음악 축제관련 기사를 싣고 있었고 <객석>은 다루지 않았다.

칼럼의 경우 <객석>이 15페이지로 가장 많은 기사를 싣고 있었으며 <The Piano>의 경우는 칼럼에 대한 기사는 싣고 있지 않았다. <객석>이 이처럼 많은 부분의 기사를 싣고 있는 것은 국내의 칼럼뿐 아니라, 해외 특과원 및 통신원이 많아 해외의 공연과 사건에 대한 칼럼이 다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객석 예술 평론 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다른 전문지에 비해 많은 칼럼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콩쿠르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기사에서는 <음악춘추>가 6페이지로 가장 많은 콩쿠르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었고, 이 중 <음악춘추>의 발행처인 음악춘추사에서 주최하는 콩쿠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 국제콩쿠르에 대한 정보와 그 외의 콩쿠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었다. <객석>과 <Flute&>에서는 콩쿠르 정보에 관한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

음악인과 음악 단체의 동향을 다루는 기사에서는 <음악저널>이 26페이지로 가장 많았고, <음악춘추>와 <Flute&>은 해당 기사를 싣고 있지 않았다. <음악저널>의 기사들에서는 지역 별로 나누어서 인물 혹은 단체의 동향을 다루고 있는 것이 다른 전문지와는 차이가 있었다.

지상레슨은 <Flute&>이 20페이지로 가장 많았고, 이는 다른 전문지의 지상레슨 방법과 같이 보통 한 곡의 지상레슨이 다루어지는 것에 비해 두곡을 싣고 있었다. 그리고 클래식만이 아니라 재즈에 대한 연주 방법과 악보를 싣고 있고, 다른 전문지와 같이 악보를 기재하고 그 위에 중요한 연습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클래스를 직접 받는 것처럼 충분한 설명과 함께 악보를 제시하고 있었다. <객석>, <음악저널>, <음악춘추>에서는 지상레슨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악 관련 도서를 소개하는 기사는 <객석>, <String&Bow>, <The Piano>가 각각 한 페이지를 다루고 있었고, <음악저널>, <음악춘추>, <Flute&>, <The Strad>에서는 도서에 대한 안내가 아닌 판매를 위한 기사로서 광고에 속하는 음악 관련 도서 기사를 담고 있었다.

독자참여 부분은 도서와 같이 <객석>, <String&Bow>, <The Piano>에서 각 한 페이지를 다루고 있었고, <음악저널>, <음악춘추>, <Flute&>, <The Strad>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독자참여가 다루어지고 있는 <객석>, <String&Bow>, <The Piano>의 경우, 해당 전문지 내에 수록된 엽서를 통해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발행처에 보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지에 게재함으로써 독자에 대한 전문지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음악저널>, <음악춘추>, <Flute&>, <The Strad>에서는 전문지 내에 엽서를 수록하고 있지 않았다.

입학정보에서는 <음악저널>이 3페이지를 다루고 있었고, 이 가운데 한 곳의 실용음악학부에 관한 입학 정보와 다른 한 곳의 신학대학교 콘서바토리의 수강생 모집 기사를 2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The

Strad>에서는 한 페이지로 입학정보에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었으며, 그 외의 전문지에는 입학관련 기사가 실려 있지 않았다.

기타에 속하는 기사가 가장 많은 전문지는 <Flute&>으로 25페이지에 해당되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는 현지 유학생의 생활을 통해 유학 정보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기사와 유학정보에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Flute&>에서만 다루고 있어 다른 전문지와는 차별화 될 수 있었지만 기타로 분류 하였다. 그 외의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전문지의 목차와 발행처의 안내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객석>은 22페이지로 그 뒤를 잇는데, 이에 속한 것은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한 설명이 6페이지로 가장 많았으며, 발행인 연극 · 뮤지컬 배우 윤석화의 독자에게 보내는 글과, 발행처에서 알리는 글, 목차,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목차는 다른 전문지와는 달리 글과 페이지만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함께 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지에 비해 목차의 페이지가 많았고, 에세이를 기타로 분류한 것은 <객석>만 에세이를 실고 있었기 때문이다.

IV. 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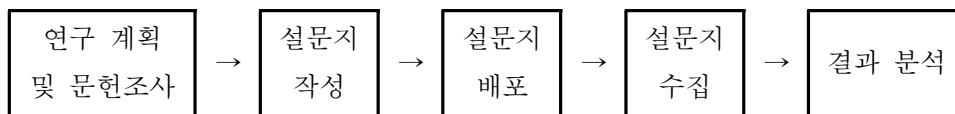
1. 설문 응답에 대한 분석

(1) 연구 배경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클래식 음악 전공생의 관심도를 조사하여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대학 중 음악 대학이 있는 대학을 방문하여 클래식 음악 전공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2) 연구 절차



3) 조사 방법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부하였고, 347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문항의 절반 이상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325부를 분석하였다 (표 24).

[표 24]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구분	배포부수	회수부수	사용부수	인원	
				남	여
관악	100	92	89	25	64
성악	80	69	65	32	33
작곡	60	51	44	18	26
피아노	70	59	53	7	46
현악	90	76	74	12	62
합계	400	347	325	94	231

4)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클래식 음악 잡지의 현황과 클래식 음악 전공생들의 관심도 조사에 관한 설문지’로서 지도 교수님의 자문을 구한 후, 사전에 클래식 음악 전공생들에게 설문지를 조사하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본격적인 설문 조사를 시작하였다.

설문지의 대상은 클래식 음악 전공 대학생들로서,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현황과 관심도 등에 관한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작성하여 5지선다형의 객관적인 선택형 문항과 복수응답이 가능한 주관식 문항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의 구성은 [표 25]와 같다.

[표 25] 설문지 구성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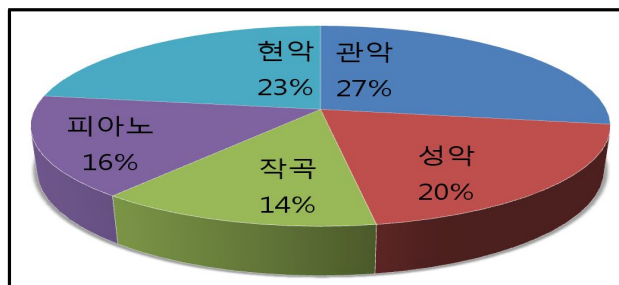
구분	세부사항	문항번호	문항 수
인적사항	성별 전공		2
관심도	관심도 - 흥미	1	4

	인식 만족도	9,11 8	
실태 · 개선방안	실태 - 참여경로, 참여기간 선택요인 - 가격, 기사, 용도 행동의도 - 구매 개선점	4,5 6,12,13,14 2,3,7,10 15	11

(2) 조사 결과 및 분석

이 연구의 대상인 클래식 음악 전공생들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조사를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 대상은 총 325명으로 남자가 94명 28.9%이고, 여자는 231명 71.1%이다. 이와 같은 남·여 비율은 음악 대학 전체의 남·여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 하였기 때문이다. 전공별로 나누어 보면 관악은 89명으로 27.4%, 성악은 65명으로 20%, 작곡은 44명으로 13.5%, 피아노는 53명으로 16.3%, 현악은 74명으로 22.8%이다. 전공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관악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작곡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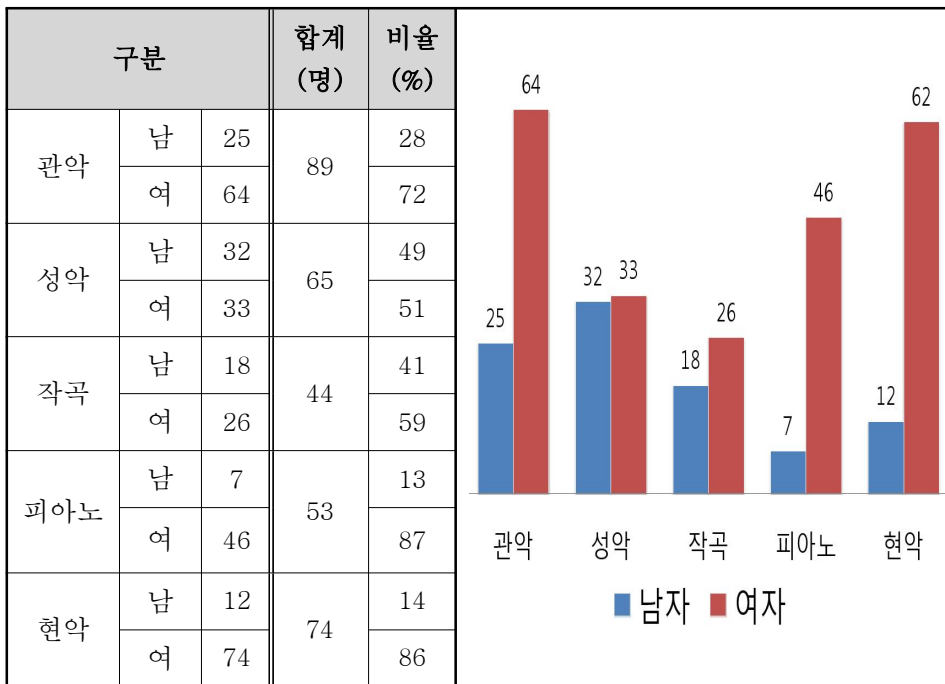
[표 26] 전공 별 분석 대상 비율



전공별 남·여 비율로 살펴보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전체 남

자 전공생 94명을 기준으로, 관악 남자 전공생은 25명 26.6%, 성악 남자 전공생은 32명 34.0%, 작곡 남자 전공생은 18명 19.2%, 피아노 남자 전공생은 7명 7.4%, 현악 남자 전공생은 12명 12.8%로 성악 남자 전공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피아노 남자 전공생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여자 전공생의 비율은 전체 여자 전공생 231명을 기준으로, 관악 여자 전공생이 64명 27.7%, 성악 여자 전공생은 33명 14.3%, 작곡 여자 전공생은 26명 11.3%, 피아노 여자 전공생은 46명 19.9%, 현악 여자 전공생은 62명 26.8%로 관악 여자 전공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작곡 여자 전공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27).

[표 27] 전체 남·여 비율



[표 28] 전공 별 남·여 비율

구분	남		여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관악	25	27	64	28
성악	32	34	33	14
작곡	18	19	26	11
피아노	7	7	46	20
현악	12	13	62	27
합계	94	100	231	100

구분	남		여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관악	25	27	64	28
성악	32	34	33	14
작곡	18	19	26	11
피아노	7	7	46	20
현악	12	13	62	27
합계	94	100	231	100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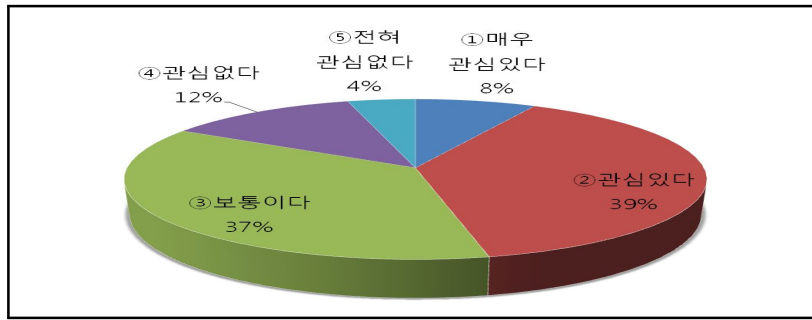
전공	비율 (%)
성악	34%
관악	27%
작곡	19%
현악	13%
피아노	7%

전공	비율 (%)
성악	14%
관악	28%
현악	27%
피아노	20%
작곡	11%

1)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흥미는?

[표 29]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흥미

응답	응답자 수	비율 (%)
① 매우 관심있다	25	7.6
② 관심있다	126	38.7
③ 보통이다	120	36.9
④ 관심없다	40	12.3
⑤ 전혀 관심없다	1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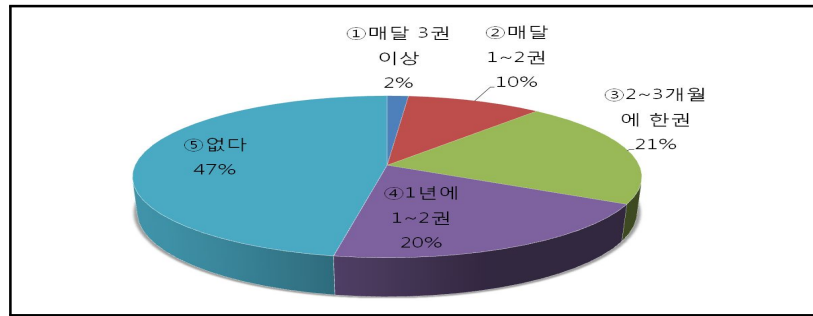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흥미는?”에 대한 질문에 ‘관심있다’로 응답한 학생이 126명, 38.7%의 비율로 가장 많았다. 전공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관악 35.9%, 성악 46.1%, 작곡 45.4%, 피아노 30.1%, 현악 37.8%로 성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가장 낮은 비율의 응답은 4.3%의 ‘전혀 관심없다’이다. 가장 낮은 비율을 전공별로 살펴보면 관악 5명, 성악 1명, 작곡 3명, 피아노 4명, 현악 2명이었다. 5명 모두 관악 여자 전공생의 응답으로 전공에 해당하는 전문지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2) 이용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종류는?

[표 30] 이용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 종류

응답	응답자 수	비율 (%)
① 매달 3권 이상	5	1.5
② 매달 1~2권	32	9.8
③ 2~3개월에 한권	69	21.2
④ 1년에 1~2권	66	20.3
⑤ 없다	153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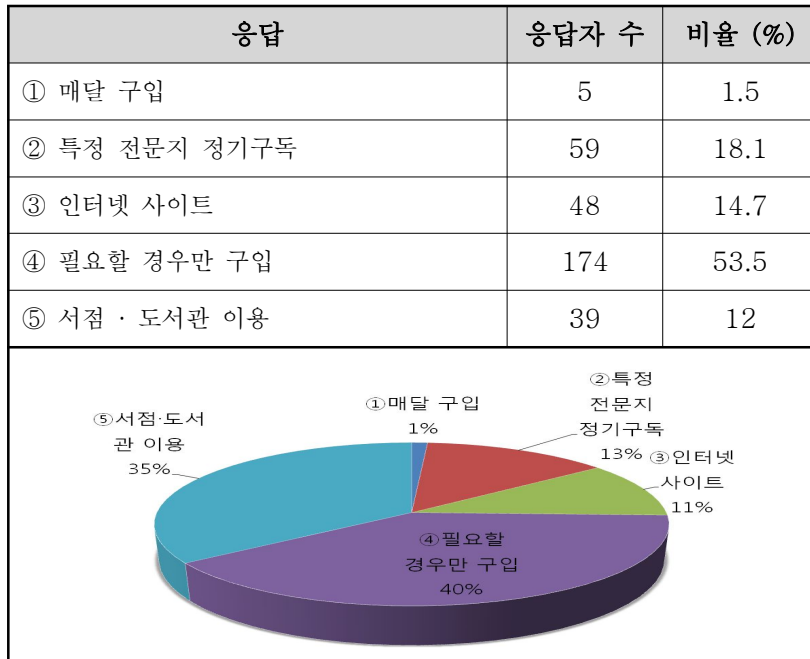
문항 2의 “이용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종류는?”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은 ‘없다’로 47.0%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을 전공별로 보았을 때 관악 48명 53.9%, 성악 31명 47.6%, 작곡 24명 54.5%, 피아노 17명 32.0%, 현악33명 44.5%로 관악 전공생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성악 전공생이 46.8%의 비율로 남자 응답자 중에 가장 많았고, 여자는 작곡 전공생이 65.3%의 비율로 가장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12월 29일 부터 2012년 1월 12일 까지 조사 실시한 <2011 국민도서 실태조사>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 동안의 독서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31.2% 비율의 응답은 ‘없음’으로 624명이 응답하였고, ‘16~20’권은 597명, ‘1~5권’은 446명, ‘6~10권’은 159명, ‘21권 이상’은 102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3.6% 비율의 ‘11~15권’으로 73명이 응답하였다.

이는 문항 2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47.0%의 ‘없다’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답한 것과 비교 하였을 때, 성인의 독서 실태가 클래식 음악 전문지 이용 실태와 유사하다.

3) 클래식 음악 전문지 구입 방법은?

[표 31] 클래식 음악 전문지 구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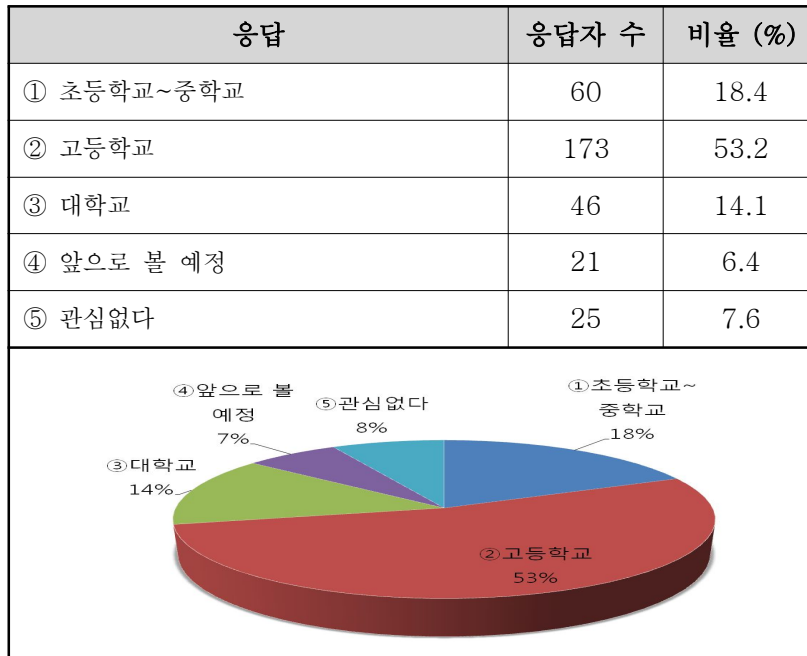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 전문지 구입 방법은?”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필요할 경우만 구입’이 174명으로 53.5%의 절반이 넘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18.1%의 응답은 ‘특정 전문지 정기구독’으로 24.5%의 비율의 피아노 전공이 가장 많은 정기구독률을 보이고 있었다. 성악 전공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모두가 정기구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

다음은 48명이 응답한 ‘인터넷 사이트’로, 이는 39명이 답한 ‘서점 · 도서관 이용’보다 높았다. 이것은 대중매체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현대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내용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공연소식과 인터뷰의 내용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서점 · 도서관 이용’의 경우는 각 대학 내의 도서관에 배치된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열람과 서점에 직접 찾아가 구입은 하지 않지만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학 내에 배치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할 수 없다.

4)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한 시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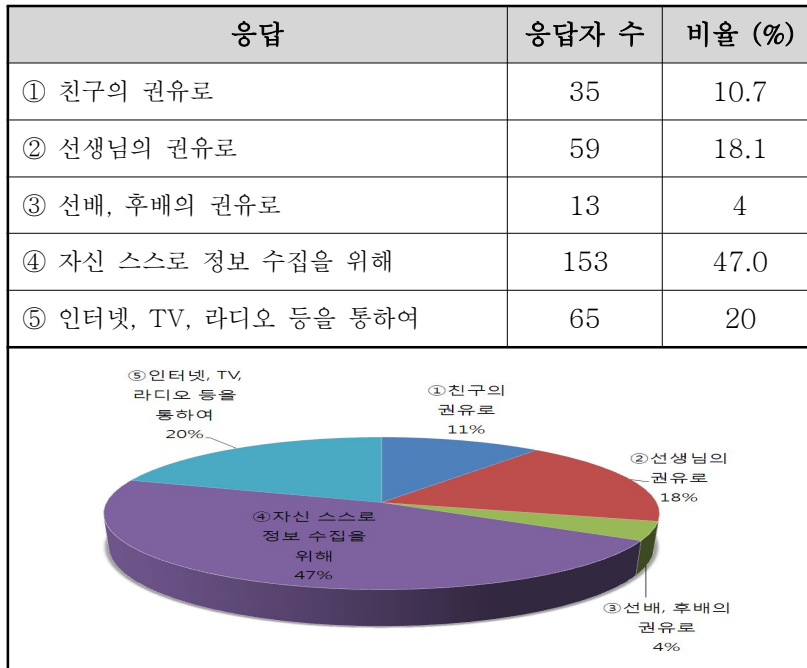
[표 32]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한 시기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한 시기는?”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고등학교’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53.2%의 비율로 173명의 학생이 답하였다. 관악 전공생이 54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관악의 악기 특성상 전공이 고등학생의 시기에 많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높은 60명이 응답한 ‘초등학교~중학교’는 현악 전공생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현악의 경우 대부분이 전공을 일찍 시작하기 때문이다. ‘대학교’에 대한 응답은 성악이 18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6.4%의 비율을 보이는 ‘앞으로 볼 예정’에 대한 응답은 작곡 전공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하게 된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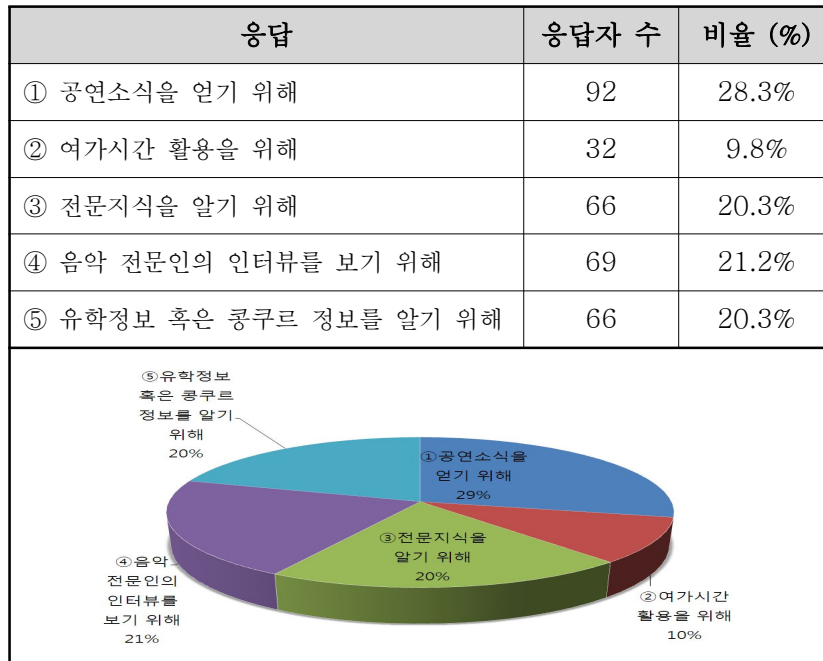
[표 33]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하게 된 동기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하게 된 동기는?”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 47.0%의 ‘자신 스스로 정보 수집을 위해’가 153명의 응답으로 가장 높았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성악 전공생이 52.3%로 가장 많았고, 남·여 비율은 피아노 전공생의 비율이 남자 전공생은 85.7%, 여자 전공생은 5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낮은 4%의 비율을 보인 ‘선배, 후배의 권유로’는 피아노 전공생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에 속해있는 관악, 현악 전공생의 경우 같이 연습과 연주를 하기 때문에 선·후배와의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피아노 전공생의 경우 개인 연습과 개인 연주가 더 많은 전공의 특성과 연관되어 진다.

6)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보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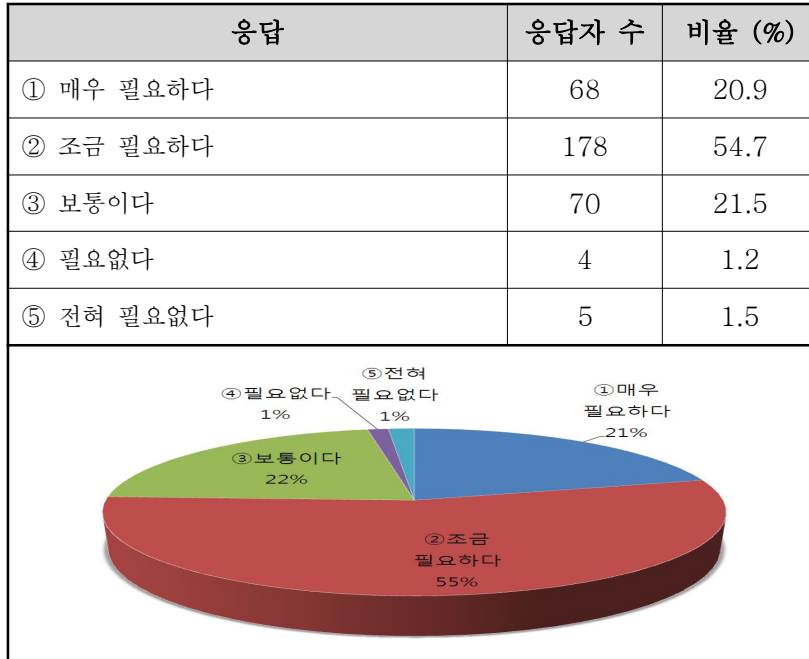
[표 34]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보는 이유



문항 6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보는 이유는?”에 대한 응답은 92명의 학생이 ‘공연소식을 얻기 위해’라고 답하였고, 관악 전공생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악 전공 남자 6명의 응답의 인원 에 비례했을 때 50%의 비율로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음악 전문인의 인터뷰를 보기 위해’는 질문8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주는 좋은점?”의 67명으로 응답한 ‘여러 연주자의 인터뷰를 통해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와 관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응답은 32명이 답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였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성악이 9명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성악 남자의 7명의 응답으로 전공과 남·여로 구분하였을 때에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현악 전공 남자의 응답은 전혀 없었다.

7)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필요한가?

[표 35]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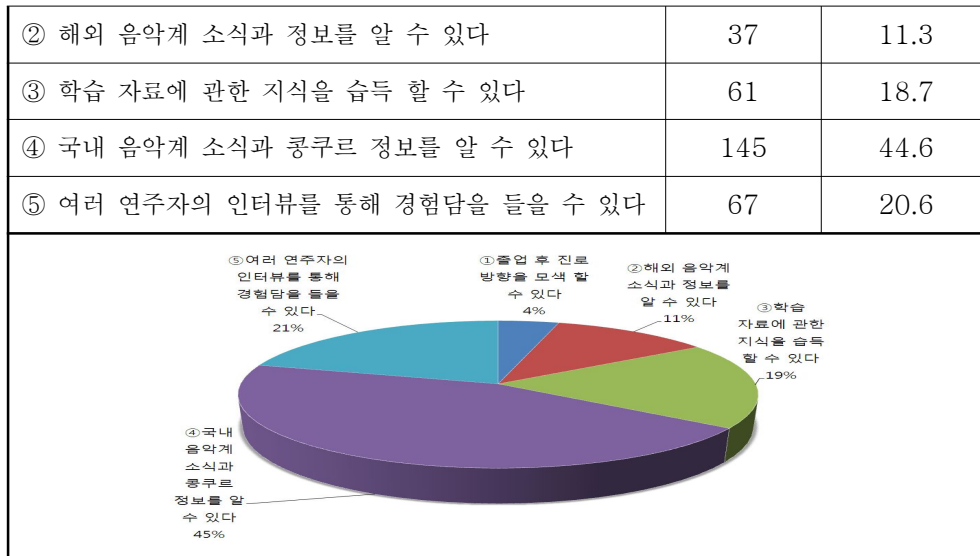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음악 전문지가 필요한가?”의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 54.7%의 응답은 ‘조금 필요하다’였다. 현악 전공생이 51명, 68.9%의 비율로 전공 별로 분류 하였을 때 가장 높았고, 남·여 비율로 분류 하였을 때는 현악 남자 전공생이 9명으로 인원 에 비례하여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응답인 1.2%의 ‘필요없다’는 성악, 작곡, 피아노, 현악에서는 응답인원이 나오지 않았고, 관악 전공 남자 1명과 여자 3명이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없다’는 피아노 전공 남자, 여자가 각각 1명씩 응답하였다.

8)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주는 좋은점은?

[표 36]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주는 이점

응답	응답자 수	비율 (%)
① 졸업 후 진로 방향을 모색 할 수 있다	14	4.3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주는 좋은점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국내 음악계 소식과 콩쿠르 정보를 알 수 있다’의 답이 145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 35]에서 볼 수 있듯이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보는 이유 중 가장 높은 공연 소식을 얻기 위해서와 일치하고 있다. 또 콩쿠르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설문지의 15번 문항 “음악 잡지의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으로 콩쿠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가장 낮은 14명의 응답자가 답한 ‘졸업 후 진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작곡이 가장 높았는데, 남자의 경우 작곡 전공 2명, 나머지 4개 전공은 모두 0명으로 나타났고, 여자 전공생은 작곡이 3명으로 11.8%를 나타내며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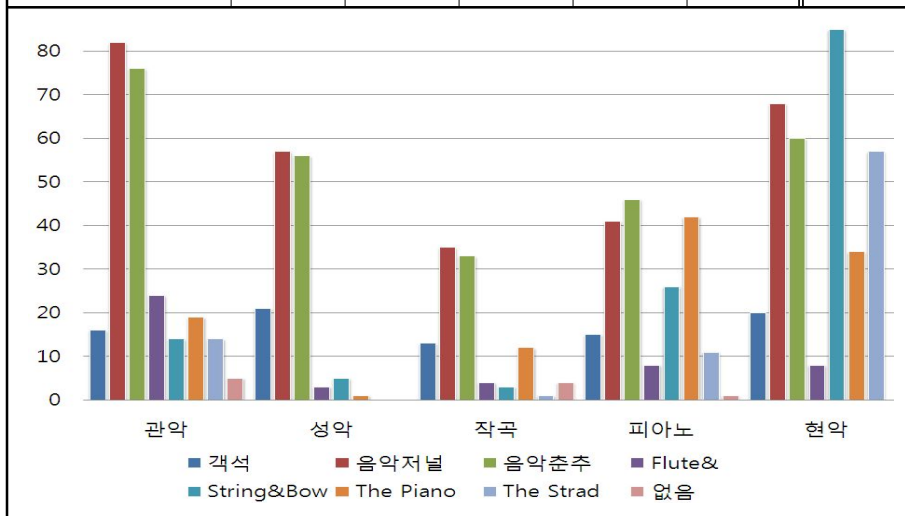
[표 37] 설문지 9~11문항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 종류 보기

- | |
|--|
| (1)객석 (2)음악저널 (3)음악춘추 (4)Flute&
(5)String&Bow (6)The Piano (7)The Strad |
|--|

9)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번호를 모두 기재해 주세요.

[표 38]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인지도

구분	전공	관악	성악	작곡	피아노	현악	합계 (명)
	총인원	89	65	44	53	74	
객석		16	21	13	15	20	85
음악저널		82	57	35	41	68	283
음악춘추		76	56	33	46	60	271
Flute&		24	3	4	8	8	47
String&Bow		14	5	3	26	58	106
The Piano		19	1	12	42	34	108
The Strad		14	0	1	11	57	83
없음		5	0	4	1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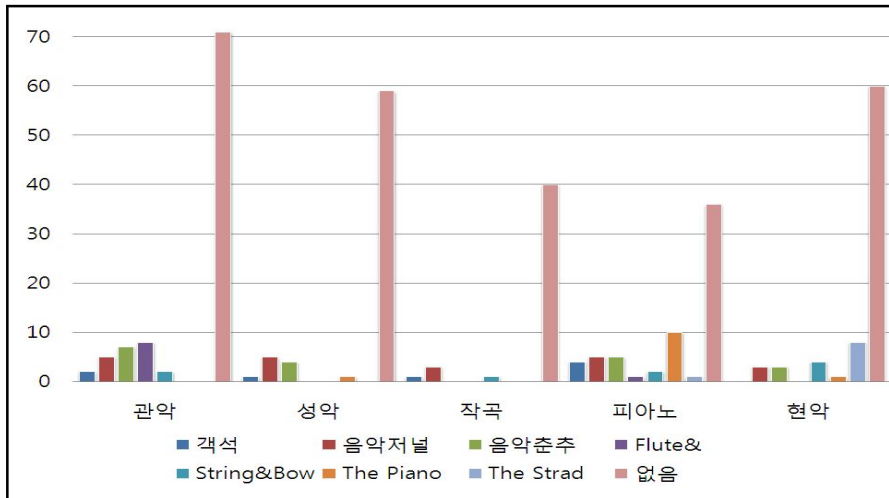
문항 9는 이 연구에서 분석한 클래식 음악 전문지 7종의 보기를 보고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복수응답으로 진행하였다. <음악저널>은 283명의 전공생이 응답하였고, 전공별로 살펴보면

관악 92.1%, 성악 87.6%, 작곡 79.5%, 피아노 77.3%, 현악 91.8%로 클래식 음악 전공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문지이고, 47명이 알고 있는 <Flute&>의 경우 다른 전공에 비해 관악 전공생이 가장 많았다. 총 7종의 전문지 모두를 모르는 학생은 11명이었다. 성악 전공의 경우는 <The Strad>를 알고 있지 않았고, 피아노 전공생의 경우, 이 문항의 가장 높은 응답인 <음악저널>이 아닌 <음악춘추>를 알고 있는 학생이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10) 위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정기구독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기재해 주세요.

[표 39] 클래식 음악 전문지 정기구독

구분	관악	성악	작곡	피아노	현악
객석	2	1	1	4	0
음악저널	5	5	3	5	3
음악춘추	7	4	0	5	3
Flute&	8	0	0	1	0
String&Bow	2	0	1	2	4
The Piano	0	1	0	10	1
The Strad	0	0	0	1	8
없음	71	59	40	36	60



문항 10은 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 7종의 정기구독 현황을 질문하였고, 이 문항 역시 복수응답으로 진행하였다.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전공생은 59명으로 전체의 18.1%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기구독을 하고 있지 않은 전공생이 266명으로 81.8%로 해당 문항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전공생이 알고 있던 <음악저널>은 21명이 정기구독을 하고 있어서 35.5%의 비율로 이 문항에서도 가장 많은 정기구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정기구독률을 보인 <객석>은 13.5%로 총 8명이었다. 1종의 전문지를 정기구독 하는 전공생은 16명, 2종의 전문지를 정기구독 하는 전공생은 34명, 3종의 전문지를 정기구독 하는 전공생은 7명이었다. 4종 이상의 정기구독을 하는 전공생은 없었다.

11) 이 외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정기구독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기재해 주세요.

[표 40] 그 밖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정기구독 현황

내용	응답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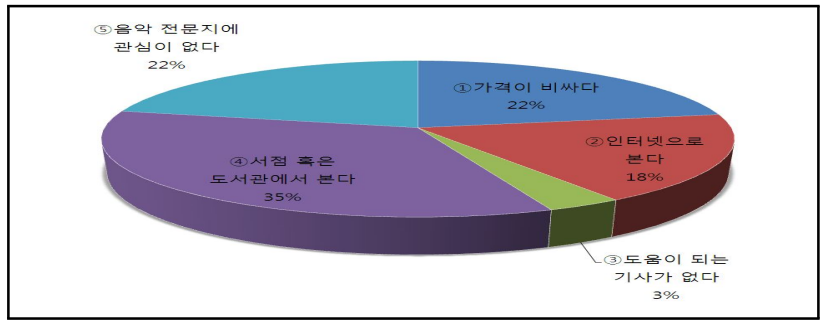
관악	- La Musica - 음악교육신문사
성악	- The Musical
작곡	
피아노	
현악	

문항 11의 질문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 외 전문지의 정기구독 현황을 조사하는 주관식 문항이었다. 관악 전공자의 응답 중 <La Musica>는 대형서점에 매월 무료로 배포되는 약 70페이지로 된 예술 전문지이고, <음악교육신문사>는 월 2회 격 주간으로 발행하는 신문으로서 두 응답 모두 문항 11에 적합하지 않다. 성악 전공자의 응답인 <The Musical>은 공연 전문지이므로 이 역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곡, 피아노, 현악에서는 그 외 정기구독의 응답을 볼 수 없었다.

12) 정기구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표 41] 정기구독을 하지 않는 이유

응답	응답자 수	비율 (%)
① 가격이 비싸다	59	22.1
② 인터넷으로 본다	49	18.4
③ 도움이 되는 기사가 없다	9	3.3
④ 서점 혹은 도서관에서 본다	92	34.5
⑤ 음악 전문지에 관심이 없다	57	21.4



“정기구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에 질문은 문항 10의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59명을 제외한 266명의 응답으로, ‘서점 혹은 도서관에서 본다’가 92명으로 34.5% 나타내어 가장 많았다. 이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25명이 답한 현악 전공이 가장 많고, 11명이 답한 피아노가 가장 작았다. 전공별 남·여 비율로 살펴보면, 작곡 전공의 남자가 47.0%로 가장 높았고, 성악 전공 남자가 20%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는 기사가 없다’가 9명의 응답으로 3.3%의 비율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는 기사가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 9명중 4명이 관악 전공으로 이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 7종에 다루어지는 관악에 대한 기사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표 42] 설문지 13~15문항에 해당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 내용에 대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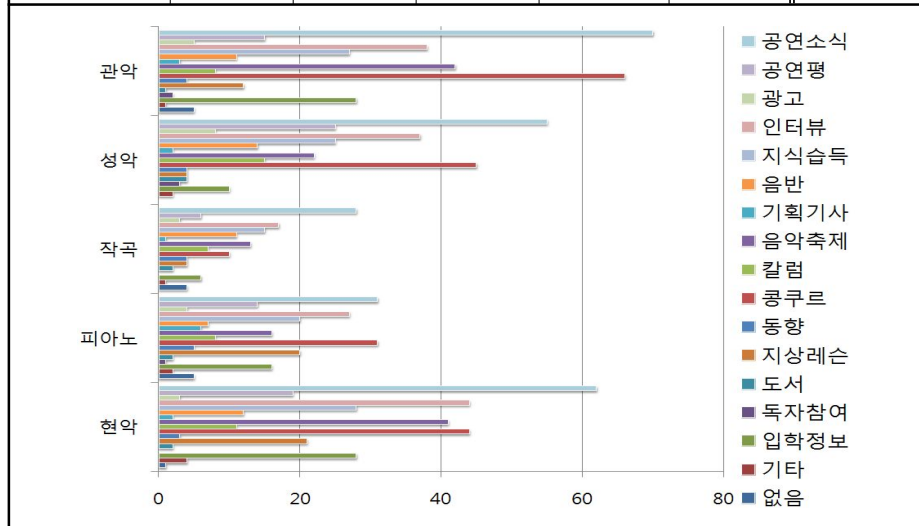
- (1)공연소식 (2)공연 평 (3)광고 (4)인터뷰 (5)지식습득
 (6)음반 (7)기획기사 (8)음악축제 (9)칼럼 (10)콩쿠르 (11)동향
 (12)지상레슨 (13)도서 (14)독자참여 (15)입학정보 (16)기타

13)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볼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사를 모두 적어주세요.

[표 43]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볼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사

전공	관악	성악	작곡	피아노	현악	합계
----	----	----	----	-----	----	----

분류	(89명)	(65명)	(44명)	(53명)	(74명)	(325명)
공연소식	70	55	28	31	62	246
공연 평	15	25	6	14	19	79
광고	5	8	3	4	3	23
인터뷰	38	37	17	27	44	163
지식습득	27	25	15	20	28	115
음반	11	14	11	7	12	55
기획기사	3	2	1	6	2	14
음악축제	42	22	13	16	41	134
칼럼	8	15	7	8	11	49
콩쿠르	66	45	10	31	44	196
동향	4	4	4	5	3	20
지상레슨	12	4	4	20	21	61
도서	1	4	2	2	2	11
독자참여	2	3	0	1	0	6
입학정보	28	10	6	16	28	88
기타	1	2	1	2	4	10
없음	5	0	4	5	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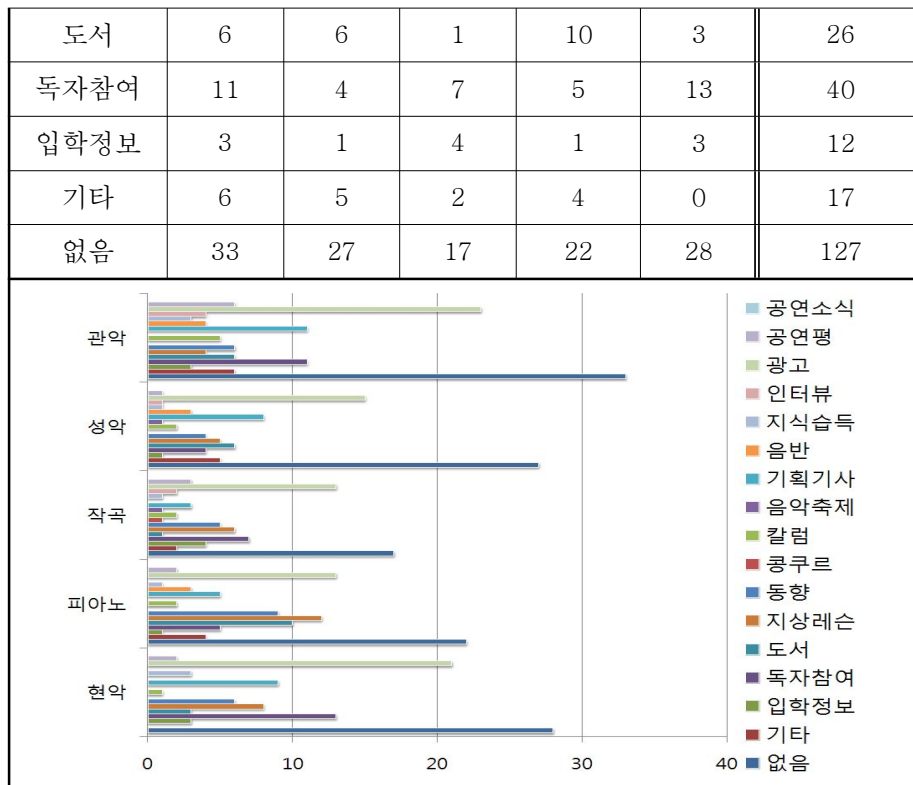


문항 13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볼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사를 복수응답으로 답하는 문항이다. [표 43]의 보기는 이 연구에서 분석한 클래식 전문지 7종의 기사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사는 246명이 응답한 75.6%의 높은 비율의 공연소식으로 문항 6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보는 이유와 문항 8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주는 좋은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콩쿠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사들로 196명이 응답하였다. 가장 낮은 응답은 1.8%의 비율을 나타내는 독자참여 기사로 6명이 응답하였다.

14)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 하는 기사를 모두 적어주세요.

[표 44]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 하는 기사

전공 분류	관악 (89명)	성악 (65명)	작곡 (44명)	피아노 (53명)	현악 (74명)	총 (325명)
공연소식	0	0	0	0	0	0
공연 평	6	1	3	2	2	14
광고	23	15	13	13	21	85
인터뷰	4	1	2	0	0	7
지식습득	3	1	1	1	3	9
음반	4	3	0	3	0	10
기획기사	11	8	3	5	9	36
음악축제	0	1	1	0	0	2
칼럼	5	2	2	2	1	12
콩쿠르	0	0	1	0	0	1
동향	6	4	5	9	6	30
지상레슨	8	12	6	5	4	35



문항 14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모두 적어주세요.”의 질문도 복수응답으로 답하는 문항이다. 가장 높은 응답은 127명이 답한 39.0%의 비율로 나타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서 보기에 제시한 내용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광고’로 85명이 택하였고 26.1%의 비율이다. 이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작곡이 29.5%로 가장 많았고, 성악이 2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연소식을 다루는 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공은 없었다.

15) 위의 내용 외에도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문항 15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주관식 문항으로, 많은 답변을 얻지는 못하였다.

관악 전공 학생들의 의견으로는 유학, 진로 정보와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음악계 종사자 중 연주자를 제외한 다른 직업을 가진 인물에 대한 인터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악기별로 더 많은 기사를 실었으면 좋겠다고 답하였고, 교향악단 오디션 공고와 연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안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 외에 연예·육아에 대한 기사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악 전공 학생들의 의견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콩쿠르 입상자의 동영상 CD를 포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 의견란을 포함하여 클래식 음악 전문지와 소통을 원하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음악 지식을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국내의 음악계에 일어나는 사건과 국외의 음악계 정보를 더 깊고 자세히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음악 전문지의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작곡 전공 학생들의 의견에는 음악계 취업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연주자의 곡에 대한 연주 해석과 그에 따르는 테크닉을 알고 싶어 하였고, 자신만의 음악 색을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전문인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였다. 또한 작곡가의 음악적 해석 방법을 알고 싶어 하였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의견은 졸업 후의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사와 취업에 관한 정보안내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외국 음악 대학교의 소개와 수업방식을 알고 싶어 하였다. 또한 유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나타나는 유학 생활에 관한 기사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배들의 입시 조언이 전문지에 포함되면 입시생들에게 조금 더 직접

적인 정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악 전공 학생들의 의견에는 연주가 외의 음악계 관련 취업정보를 알려 주고, 그에 따른 공고를 많이 신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같은 맥락으로 졸업 후의 진로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학에 대한 정보를 전공의 특성에 맞게 안내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전문 연주자의 인터뷰 외에 일반 대학생들의 연습 수기 및 경험담에 관한 인터뷰를 포함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섯 개 전공 모두에 공통으로 포함된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사는 진로와 취업에 관한 기사였다. 다음으로 관악, 피아노, 현악의 3개 전공에서 응답한 유학정보에 관련된 기사였다.

2. 설문 조사 결과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흥미를 조사한 문항 1의 가장 많은 답변은 ‘관심있다’였고, 성악 전공생이 46.1%로 가장 높았다. ‘전혀 관심없다’는 가장 낮은 답변으로 관악 여자 전공생의 비율이 7.8%로 가장 높았다. 이용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종류는 ‘없다’의 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다. 남자는 성악 전공생이 46.8%로 가장 많고, 여자는 작곡 전공생이 65.3%로 가장 많았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구입방법은 53.5%의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전문지의 정기구독은 18.1% 59명이 응답하였는데 이 중 피아노 전공이 가장 많았으며 성악 전공의 남·여는 정기구독을 하지 않았다. 클래식을 접한 시기는 ‘고등학교’의 응답이 53.2%로 가장 많았으며 관악 전공이 가장 많았고, ‘대학교’의 응답은 성악이 많았다. ‘앞으로 볼 예정’의 응답은 작곡 전공생들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하게 되는 동기는 153명이 ‘자신 스스로 정보 수집을 위해’라고 답하였다. 이 중 성악 전공생이 가장 많았으며, 남·여 비

율로 보면 남자 전공생이 85.7%, 여자 전공생 52.1%로 각각 가장 높았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보는 이유는 ‘공연소식을 얻기 위해’가 92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이며, 관악 전공생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악 남자 전공생 6명의 응답은 인원에 비례하였을 때 50%의 비율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의 가장 많은 응답은 178명 54.7% ‘조금 필요하다’이고, 현악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작곡이 20명으로 가장 적었다. ‘필요없다’의 응답은 관악 전공에서만 나타났고, ‘전혀 필요없다’는 피아노 전공 남·여에서만 나타났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전공생에게 주는 이점은 ‘국내 음악계 소식과 콩쿠르 정보를 알 수 있다’가 가장 많은 145명의 응답이었고, 이는 앞서 질문한 클래식 전문지를 보는 이유와 일치한다. <음악저널>은 283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클래식 음악 전문지 중 가장 많은 인지도를 나타냈고, <Flute>은 47명만이 알고 있다고 하여 가장 인지도가 낮았다. 이 연구의 대상인 클래식 음악 전문지 7종을 모두 모르는 전공생이 11명이었으며, 성악 전공은 <The Strad>를 알지 못했고, 피아노 전공은 <음악춘추>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전공생 266명 81.8%가 정기구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음악저널>은 21명이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종의 정기구독은 16명, 2종의 정기구독은 34명, 3종의 정기구독은 7명이며 4종 이상의 정기구독을 하는 전공생은 없었다.

그 외 정기구독에는 관악 전공생의 응답인 <La Musica>와 <음악교육신문사가>있었고, 성악 전공생의 <The Musical>이 있었으며, 작곡, 피아노, 현악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정기구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서점 혹은 도서관에서 본다’가 가장 많은 34.5%였고, 가장 낮은 이유는 ‘도움이 되는 기사가 없다’로 전문지의 내용에 잘 다루어지지 않는 관악 전공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사는 ‘공연소식’으로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보는 이유와 이점에 대한 질문의 응답과 일치한다. ‘독자참여’가 가장 낮은 1.8%의 비율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광고’의 비율이 26.1%로 높았으며, ‘공연소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공은 없었다. 전공생들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는 진로·취업의 기사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유학관련 정보에 대한 기사 또한 필요로 하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잡지는 타 매체에 비해 전문분야를 다루는 특성이 있고, 독자 스스로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목적 지향적이며, 그로 인하여 분명한 각인이 되어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 전문지는 잡지를 내용과 성격으로 분류 하였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유형이며,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이 중 문예·학술지에 속해 있다. 클래식 음악 전공생은 더욱 전문적인 안목이 필요로 하며 음악계의 소식과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타 매체보다 많이 의존하게 된다.

이 연구는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관심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관광부 정기 간행물로 등록되어진 음악 전문지는 총 76종으로 이 가운데 실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음악 전문지가 많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의 대형서점 4곳의 18개 지점을 방문 조사하여 실제 판매되는 음악 전문지 18종 중 클래식 음악 전문지 7종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7종은 클래식 음악 및 예술교양 전문지 <객석>, 클래식 음악 전문지 <음악저널>, <음악춘추>, 플루트 전문지 <Flute&>, 현악 전문지 <String&Bow>, <The Strad>, 피아노 전문지 <The Piano>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 7종을 분석한 결과 공연소식, 공연 평, 광고, 인터뷰, 지식습득의 기사는 전문지 전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공연소식과 인터뷰 기사는 평균적으로 전문지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클래식 음악 전공생이 가장 관심 있는 기사의 내용은 공연소식과 콩쿠르의 기사였다. 그런데도 전공생들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공연소식과 인터뷰, 콩쿠르 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현재 출판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대부분 비슷한 형식으로 특정 화제의 기사와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콩쿠르에 관련된 기사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클래식 음악 전공생이 클래식 음악 전문지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광고 기사 부분으로, 광고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은 광고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이므로 불가피하지만 개선점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소재의 음악 대학의 5개 전공 관악, 성악, 작곡, 피아노, 현악 전공생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에 응답한 325명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래식 음악 전공생 46.3%가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필요성은 78.9%의 높은 비율로 전공생 스스로의 교육 효과와 음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설문조사한 325명의 클래식 음악 전공생 가운데 정기구독은 단 59명만이 하고 있는 매우 낮은 정기구독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분석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더욱 전문화되어지고 다양해져야 한다. 7종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서 가장 많았던 '공연소식'과 '인터뷰'기사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부분이 많았다. 이것이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공을 다루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되어야 한다. <객석>, <음악저널>, <음악춘추>처럼 한 분야의 전공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아닌 음악 전반을 다루며 인지도가 높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는 더 다양한 기사를 다루어야 한다. 플루트 전문지<Flute&>, 현악 전문지<String&Bow>, <The Strad>, 피아노 전문지<The Piano>는 각자의 전공자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 전문지이므로 조금 더 전문화되고 차별성을 두어 전공자들의 음악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관악, 성악, 작곡 전공자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전문지의 개발 또는 음악 전반을 다루는 전문지에서 그들을 위한 기사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둘째,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정기구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흥미와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정기구독을 하는 전공생은 18.1%의 낮은 비율에 불과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다섯 개 전공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클래식 음악 전문지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진로와

취업에 관한 기사이므로 이를 보강하여 음악 전공생에게 음악 전문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기구독을 하였을 때의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설문결과 정기구독을 하지 않는 이유로 22.1%의 전공생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는데, 정기구독을 하였을 때 전문지의 가격을 인하해주고, 음악 관련 사은품을 주는 것 또한 정기구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중성을 가지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되어야 한다. 음악 전공생들의 전문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악 전문지를 출판하는 각 출판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 사업을 음악 전문지의 주 독자층인 음악 전공생에게 펼침으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출판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는 음악 콩쿠르, 음악 캠프, 연주회, 음악 관련 도서출판, 악보보급 등이 있는데, 이를 더 활용하여 음악 전공생의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악 전공생이 전문지에 참여 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독자의견을 수록하는 부분을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객석>, <String&Bow>, <The Piano>에서만 독자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자층들의 참여를 발전시켜야 전문지의 발전과 함께 전문지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 연구가 클래식 음악 전문지와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내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더욱 활성화되며 클래식 음악 전공생이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영심 외, 2008, <일제 시기 근대적 일상과 식민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Swingewood, A, 이강수 역, 1984, <대중문화의 원점(The Myth of Mass Culture)>, 전예원
- 고덕환, 1995, <한국도서편집론>, 삼지원
- 고정기, 1991, <잡지편집의 이론과 실제>, 보성사
- 김근수, 2004, <한국 잡지사>, 한국학연구소
- 대한출판문화협회, 1992, <한국출판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
- 박기현, 2003, <한국의 잡지 출판>, 늘푸른소나무
- 박신흥, 1992, <출판문화교육론>, 경인문화사
- 안춘근, 1999, <잡지출판론>, 범우사
- 오진환 외, 1985, <한국 언론과 사회교육 - 사회교육 모체로서의 언론에 관한 연구>,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 오진환, 1981-1990, <잡지의 편집, 광고 및 판매전략, 잡지발전 세미나 자료집>, 한국잡지협회
- 유재천, 2011, <한국언론사상사 서설>, 지식산업사
- 음악연감편집위원회, 1966, <음악연감 : 음악70년사 · 무용40년 수록>, 세광출판사
- 이건실, 1990, <인쇄매체 광고디자인>, 나남
- 이광재 · 이경자 · 한균태 외, 2009, <현대사회와 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광재 외, 1984, <매스컴과 사회>, 삼영사
- 이유선, 1985, <한국 양악 100년사>, 음악춘추사
- 이제식, 2006, <잡지기획과 편집디자인> 미담북스

이중환 · 이두영 · 양문길 · 양평, 2002,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전영표, 1997, <출판문화와 잡지 저널리즘>, 대광문화사
차배근, 1987,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세영사
채백, 1999, <출판학>, 한나래
최진우, 1975, <한국 지방 신문에 관한 연구>, 기념논총

2. 학위논문

김성은, 2005, <국내 클래식 음악 잡지 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경숙, 2009, <국내 영화전문지 표지디자인의 시각표현에 관한연구 :
제호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화영, 1988, <우리나라 디자인 전문지 편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송태욱, 1977, <홍난파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반야, 2006, <국내 음악 전문 월간지에 대한 독자들의 만족도 분석과 개
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음악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경원 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홍혜정, 1981, <한국 음악잡지의 발달과 그 성격에 관한 소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홈페이지

<객석> 홈페이지 <<http://www.gaeksuk.com/>>
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 <<http://www.culture-arts.go.kr/>>
<음악저널> 홈페이지 <<http://www.eumakjournal.co.kr/>>
<음악춘추> 홈페이지 <<http://www.eccs.co.kr/>>
<Flute&> 홈페이지 <<http://flutehouse.blogspot.com/>>

<String&Bow> 홈페이지 <<http://www.eumyoun.com/>>

<The Piano> 홈페이지 <<http://www.eumyoun.com/>>

<The Strad> 홈페이지 <<http://www.mastmedia.co.kr/>>

4. 기타자료

동아일보 기사 : 1990년4월12일

문화관광부 정기 간행물 등록사 현황 (2011년 11월 30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 국민도서 실태조사>

신도성, 2010, 5월호, 월간 <객석>, 돌곶컴퍼니

이윤희, 2004, 3월호, 월간 <The Piano>, 음연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he Interests of Undergraduate Music Major Students about the Classical Music Magazines

Hwang, HyoJin

Music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selected seven classical music magazines publish contents necessary and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majoring in classical music and to survey the thoughts of the majoring students towards the magazines in order to seek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the future.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18 branches of four major bookstores in Seoul were visited and magazines currently in circulation were examined ; then, seven classical music magazines were selected and articles in March 2012 issues of the selected magazine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ir contents for analysis. In addition, the undergraduate students studying at music colleges within Seoul were categorized based on five majors (the wind, vocal music, composition, piano, and strings), and 325 of them were randomly selected for a survey in order to examine their thoughts towards the magazin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as of March 2012, total of 76 music magazines were registered as periodicals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32 of them were being published monthly and eight of them were classical music magazines. On the other hand, 18 music magazines were actually being circulated in the bookstores, eight of which were classical music magazines.

Second, length of the magazines are as follows in a decreasing order : <The Piano> with 182 pages, <The Auditorium> with 166 pages, <Music Journal> with 164 pages, <The Strad> with 164 pages, <Music Spring&Autumn> with 156 pages, <String&Bow> with 142 pages, and <Flute&> with 124 pages. The difference among the magazines in length was as many as 60 pages.

Third, when the articles were analyzed based on their contents, the category with the most articles was performance news category with 26.9 percent and the one with least articles was Books & Readers' Participation with 0.2 percent. The categories were ranked in order of performance news > interview > advertisement > special in-depth > miscellaneous > performance reviews > lesson in the magazine > trend > acquisition of knowledge > column > Concerto Competition > Recordings > Music Festivals > Admissions Information > Books&Readers' Participation.

Fourth, when the surveys were analyzed, 151 students (46.3 %) majoring in music showed interest towards the classical music magazines; however, per the necessity of the magazines, 78.9 percent of the students did not perceive the role of the magazines in their self-development and music.

Fifth, there were 11 students who did not recognize the seven selected classical music magazines; the magazines were most

familiar to the students in the following order : <Music Journal>, <Music Spring&Autumn>, <The Piano>, <String&Bow>, <The Auditorium>, <The Strad>, and <Flute&>.

Sixth, 266 students (81.8%) indicated that they are not subscribed to a particular magazine, and out of 59 students with subscription, 21 students were subscribed to <Music Journal>, the magazine with the most subscription rate. 16 students had subscriptions to one magazine, 34 students subscribed to two magazines, 7 students to three magazines, and no students had subscriptions to four or more magazines.

Hence, in order to develop themselves as periodicals that are more essential, effective, and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majoring in classical music, the classical music magazines must become more specialized and diversified. Moreover, the magazines should seek methods to increase subscription rates while improving themselves as periodicals with mass appeal. To do so, the publishers of the classical music magazines must include specialized articles that are useful for and preferred by the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lassical music as well as communicate with the students.

Meanwhile, the students are expected to utilize the classical music magazines with interest and attentions in order to contribute in the development of the music field.

- 부 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현황과 클래식 음악 전공생들의 관심도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이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신 귀중한 자료는 오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황 효진

- 성별은? 남() 여()

- 전공은? 관악() 성악() 작곡() 피아노() 현악()

1.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 대한 흥미는?

①매우 관심있다 ②관심있다 ③보통이다 ④관심없다 ⑤전혀 관심없다

2. 이용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종류는?

①매달 3권 이상 ②매달 1~2권 ③2~3개월에 한권 ④1년에 1~2권 ⑤없다

3. 클래식 음악 전문지 구입 방법은?

①매달 구입 ②특정 전문지 정기구독 ③인터넷 사이트 ④필요할 경우만 구입
⑤서점·도서관 이용

4.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한 시기는?

①초등학교~중학교 ②고등학교 ③대학교 ④앞으로 볼 예정 ⑤관심없다

5.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접하게 된 동기는?

- ①친구의 권유로
- ②선생님의 권유로
- ③선배, 후배의 권유로
- ④자신 스스로 정보 수집을 위해
- ⑤인터넷,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6.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보는 이유는?

- ①공연소식을 얻기 위해
- ②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 ③전문지식을 알기 위해
- ④음악 전문인의 인터뷰를 보기 위해
- ⑤유학정보 혹은 콩쿠르 정보를 알기 위해

7.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필요한가?

- ①매우 필요하다
- ②조금 필요하다
- ③보통이다
- ④필요없다
- ⑤전혀 필요없다

8.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클래식 음악 전공생에게 주는 좋은점은?

- ①졸업 후 진로 방향을 모색 할 수 있다
- ②해외 음악계 소식과 정보를 알 수 있다
- ③학습 자료에 관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다
- ④국내 음악계 소식과 콩쿠르 정보를 알 수 있다
- ⑤여러 연주자의 인터뷰를 통해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 다음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입니다.(9~11문항)

(1)객석 (2)음악저널 (3)음악춘추 (4)Flute& (5)String&Bow (6)The Piano (7)The Strad
--

9.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번호를 모두 기재해 주세요.

()

10. 위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정기구독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기재해 주세요.
()

11. 이 외의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정기구독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기재해 주세요.
()

12. 정기구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 ①가격이 비싸다
- ②인터넷으로 본다
- ③도움이 되는 기사가 없다
- ④서점 혹은 도서관에서 본다
- ⑤음악 전문지에 관심이 없다

* 다음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내용입니다.(13~15문항)

(1)공연소식 (2)공연 평 (3)광고 (4)인터뷰 (5)지식습득 (6)음반 (7)기획기사 (8)음악축제 (9)칼럼 (10)콩쿠르 (11)동향 (12)지상레슨 (13)도서 (14)독자참여 (15)입학정보 (16)기타
--

13.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볼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사를 모두 적어주세요.
()

14. 클래식 음악 전문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 하는 기사를 모두 적어주세요.
()

15. 위의 내용 외에도 클래식 음악 전문지의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 귀한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